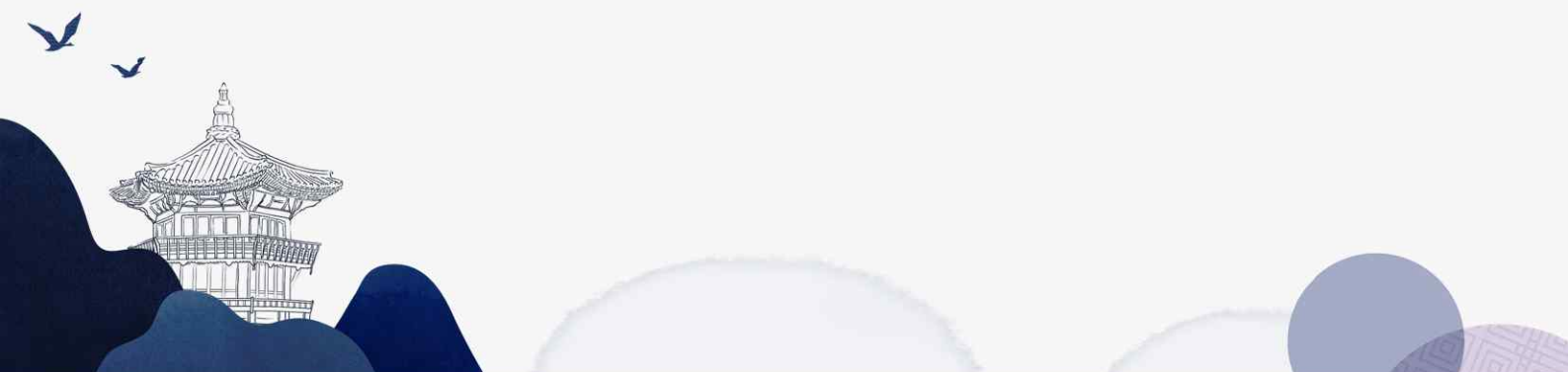




##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26
4	讲义	54
5	퀴즈	73
6	토론	77
7	자료	79





## 학습안내



### 01

#### 과목소개

<새로 읽는 한국의 고전>은 한국의 고전 가운데 6종의 문헌을 선정하여 저술 배경과 의의를 살피고 핵심적인 부분을 함께 읽어가면서 이해를 도모하는 고급 교양 강좌이다. 6종의 고전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문헌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문헌을 깊이 연구하고 번역서를 간행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강사로 참여하도록 기획하였다. 각각의 문헌마다 2주의 강의를 진행하는데, 각기 고전의 저자, 저술 배경, 의의 등을 소개하는 '이해'와 고전의 본문을 강독하면서 해설을 곁들이는 '읽기'로 구성된다. 6종의 문헌을 다룬 강의를 모두 학습하는 것을 권고하지만, 수강생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일부 문헌만 학습하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수강생들은 본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02

#### 학습목표

- (1) 한국 고전의 이해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 (2) 한국 고전의 감상을 통해 고전의 본질과 의미를 탐색하고 한국 및 동아시아의 기록문화를 직접 대면하는 기회를 얻는다.
- (3) 한국의 고전을 매개로 삼아 한국 및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 및 출판문화에 대해 이해한다.

### 03

#### 기대효과

이 강좌는 한국의 고전을 직접 읽어가면서 내용과 의의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좌에서 다루는 6종의 고전 가운데에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문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헌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차별화된 고급 교양을 얻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문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번역서를 간행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가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였기 때문에, 이 강좌는 수강생들에게 전통적인 한국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강좌에서는 《양화소록》, 《경민편》, 《연병지남》, 《한경지략》, 《만국사물기원역사》, 《한국통사》의 6종의 고전을 각기 2주씩 강의한다. 이들 고전은 화훼 재배와 감상, 백성의 교화, 병법, 풍속과 문화, 백과사전적 지식,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수강생이 그 저술 배경과 저자 등에 대한 지식을 찾아가면서 내용을 감상하게 되면 한국의 전통문화와 사회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될 것이며,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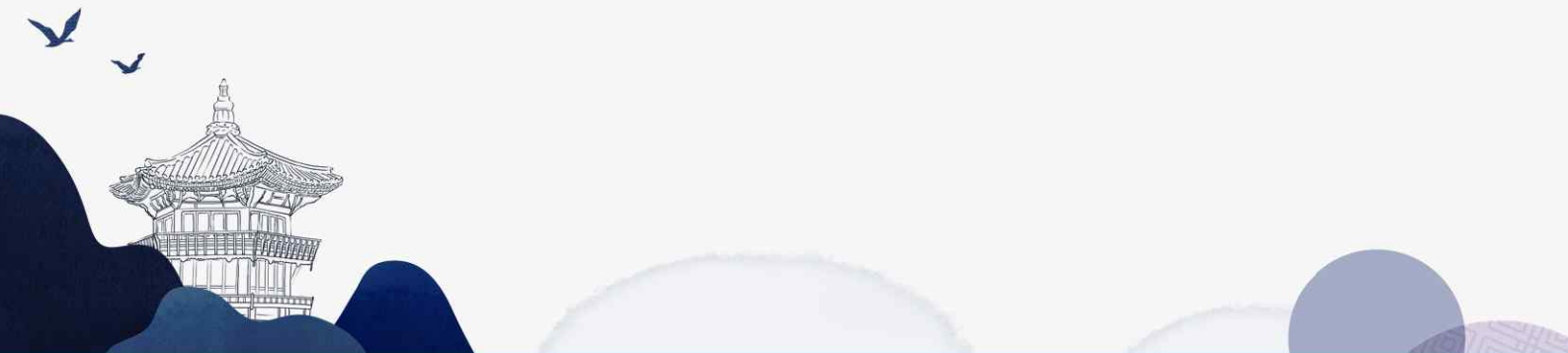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 주차별 구성

1주차	《양화소록》의 이해
2주차	《양화소록》 읽기
3주차	《경민편》의 이해
4주차	《경민편》 읽기
5주차	《연병지남》의 이해
6주차	《연병지남》 읽기
7주차	《한경지략》의 이해
8주차	《한경지략》 읽기
9주차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이해
10주차	《만국사물기원역사》 읽기
11주차	《韓國痛史》의 이해
12주차	《韓國痛史》 읽기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5

주차

### 『연병지남』은 어떤 책인가

#### 5-1

#### 『연병지남』은 어떤 책인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 읽는 한국의 고전에서 『연병지남』의 강의를 맡은 노영구입니다. 이번 강의는 다섯 번째 강의로 ‘연병지남은 어떤 책인가’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병지남』은 일반인들에게는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입니다만, 국어학에서는 이 책의 연해가 있어 17세기 초 한글 표기법을 가진 자료로서 일찍부터 주목된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기본적으로 17세기 초 병서로서 그리 간단한 자료는 아닙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조선 중기 병서인 『연병지남』에 대한 서지학적인 소개와 간행 배경, 그리고 체재와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 책을 저술한 한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책의 자료적 가치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이를 통해 17세기 조선의 대외적인 상황과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을 병학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 책의 주요한 내용을 읽어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조선 병학의 일단을 보겠습니다.

『연병지남』은 조선 중기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를 제외하고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는 책 이름일 것입니다. 『연병지남』은 1612년 광해군 4년 성리학자로서도 유명한 병학자였던 한교(韓嶠)가 쓴 1책 36장의 분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 군사 훈련용 병서입니다.

『연병지남』이 학계에 그 존재가 최초로 소개된 것은 역사학의 군사사 관련 자료로 알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국어학 분야에서 가장 먼저 이 책의 가치를 평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책의 본문이 한문으로 내용을 서술하고 이를 연해 하였으므로, 17세기 초 국어 자료로서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17세기 초 군사사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지난 2000년 초 학술지인 『문헌과 해석』 14호에 이 책의 체재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소개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기획한 ‘새로 읽는 우리 고전 시리즈’ 중 하나로 제가 『연병지남』의 역주서를 내면서, 이 책의 내용 모두를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교의 생애와 저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5-2 한교의 생애와 저술

이번 시간에는 『연병지남』의 저자인 한교(韓嶠)라는 인물의 생애와 저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한교(韓嶠)는 조선 중기 병학자로서 매우 이색적이며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는 비록 율곡 이이(李珥)와 우계 성혼(成渾) 문하에서 수학한 성리학자였지만, 임진왜란을 계기로 훈련도감에 들어가 『연병지남』 이외에 여러 종류의 새로운 병서를 편찬하여, 조선 후기 병학의 기초를 닦는데 공헌을 세운 인물로 주목됩니다. 한교의 자는 사양(士昂)이고 호는 동담(東潭)으로 본관은 청주(淸州)입니다.

한교(韓嶠)는 조선 초기 세조-성종 대의 유명 인물인 한명회(韓明澮)의 5세손으로 1556년 명종 11년 11월 30일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은 서얼 출신으로서 서얼의 자손이라는 혈연적 하자는 이후 한교의 삶에서 하나의 질곡이 되었지만, 동시에 다른 성리학자보다 유연하게 여러 분야의 학문을 접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교(韓嶠)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자질로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내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에게서 성리학을 배웠습니다. 한교는 학문의 초기에는 이이의 문하에 있었지만, 이이의 교우였던 성혼이 이이가 기발(氣發)만을 인정한 것에 반대하고, 이황(李滉)이 이발(理發)을 주장한 것을 지지하며 이기일발론(理氣一發說)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이와 1572년부터 6년에 걸친 논쟁의 와중에 성혼을 지지하며, 조헌(趙憲), 황신(黃愼), 이귀(李貴), 정엽(鄭曄) 등과 함께 성혼의 문하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교는 기존 성혼의 문인이었던 오윤겸(吳允謙), 최기남(崔起南), 안방준(安邦俊) 등과 성혼학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교가 임진왜란 이후 병서 간행 및 인조반정과 관련하여 이귀, 최기남 등과 관계가 확인되는 것은 이러한 사실에 기원합니다. 이이, 성혼의 문하에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예학에 대한 이해도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존하지는 않지만 『가례보주(家禮補註)』를 저술한 것은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홍범연의(洪範衍義)』, 『사칠도설변의(四七圖說辨義)』, 『소학속편(小學續編)』, 『심의고(深衣考)』 등의 성리학 관련 저술을 남겼으나 불행히도 현재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한교는 성리학 이외에 여러 분야의 책을 널리 섭렵하여 천문, 지리, 복서(卜筮), 병학 등의 학문도 두루 통달하였습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한교는 향병(鄉兵), 즉 의병을 모아 일본군에 대항하여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웠고, 이 공로로 사재감 참봉에 제수되었습니다. 이듬해 일본군이 한성에서 물러나자, 당시 영의정으로 전란 수습을 책임지고 있던 류성룡이 병서에 능통한 한교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새로 편성한 군영인 훈련도감의 낭청(郎廳)에 임명하였습니다.

그해 1월 초 평양성 전투에서 명나라군은 새로운 전술인 절강병법을 구사하여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명군은 이 전투에서 각종 화포와 로켓 무기인 화전(火箭)을 이용하여 원거리에서부터 일본군의 기선을 제압하고, 이어 새로운 근접전 병기인 방패, 당파, 낭선, 장창 등을 가진 군사를 집중 운용하여 일본군의 장기인 근접 백병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절강병법으로 알려진 이 전술이 일본군을 격퇴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목격한 조선은 이를 습득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이 전술의 내용이 명나라 장수 척계광의 『기효신서(紀效新書)』에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책의 입수에 노력합니다. 『기효신서』는 16세기 중반 명나라 남방 지역인 절강성 및 복건성 일대를 침략하던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 척계광이 고안한 전술을 담은 병서입니다.

척계광은 이 지역이 도로가 좁고 습지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호준포 등 경량 화포와 조총 등의 개인 화기를 대량으로 갖추어 왜구를 화력으로 제압하고 아울러 낭선, 당파, 등패, 장창 등 새로운 근접전 무기를 도입하여 왜구의 우수한 검술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각종 화포를 통한 강한 화력에 더하여 군사 10명으로 구성된 기본 전투 단위인 '대(隊)'를 중심으로 협동하여 왜구를 공격하는 이 전술을 통해 명군은 성공적으로 왜구를 토벌하였습니다.

임진왜란 기간 중 명군의 군진(軍陣)과 사신을 통한 입수 등 여러 경로를 거쳐 다양한 판본의 『기효신서』를 습득한 조선은 곧바로 조선군의 편성과 훈련을 『기효신서』에 따라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류성룡은 한교에게 『기효신서』의 해석을 담당하도록 하고, 이 노력을 바탕으로 절강병법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자, 이를 보급할 새로운 군영으로 1593년 가을 훈련도감을 창설하였습니다.

훈련도감은 조총병인 포수(砲手)와 궁수인 사수(射手), 그리고 근접전 군사인 살수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수는 조선의 전통적인 장기이며 포수는 조총을 연속으로 쏘는 훈련만 하면 양성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수는 『기효신서』에 처음으로 소개된 등패, 낭선, 장창, 당파를 가진 군사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운용법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절강병법을 온전히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살수의 기예를 익히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 선조의 명령으로 한교는 근접전 군사인 이른바 살수(殺手)를 훈련 시키기 위해 『기효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잘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명나라 군진의 장사(將士)들에게 물어가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살수의 기예를 보급하기 위해 실전적인 무예서 편찬에도 착수하게 됩니다.

훈련도감 창설과 군사 훈련이 본궤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교는 연이어 부모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급히 병사들을 훈련 시킬 다양한 종류의 병서가 필요한 당시 상황에서 한교를 3년간 복상(服喪)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조는 한교에게 상(喪)을 당해 휴직 중인 관리를 복상기간 중에 직무를 보게 하던 제도인 기복(起復)을 명하여 무에서 등 관련 병서 편찬을 그대로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편찬된 『기효신서절요(紀效新書節要)』, 『무예제보(武藝諸譜)』, 『조련도식(操鍊圖式)』 등은 그의 병서 연구의 결정판입니다. 『기효신서절요』는 『기효신서』의 내용 중 병학의 원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조련도식』은 『기효신서』의 훈련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이 책은 조선 후기 가장 중요한 군사 교련서인 『병학지남(兵學指南)』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무예제보』는 절강병법에 필요한 6가지 무예, 즉 대봉(大棒, 곤봉), 등패(藤牌), 낭선(狼筈), 장창(長鎗), 당패(鎗鈹), 장도(長刀)의 기예를 정리한 한국 최초의 무예 관련 병서입니다. 무예의 연속 동작을 『기효신서』보다 더 상세히 서술한 점 등은 그의 병서에 대한 깊은 이해의 폭을 보여줍니다. 『무예제보』는 이후 정조대 편찬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원형을 이룬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됩니다.

『기효신서절요』 등 주요한 병서가 완성되자, 한교는 곧바로 경기도 광주의 퇴촌(退村)으로 물러나 미처 행하지 못한 부모의 복상을 마치게 됩니다. 복상을 마치고 한성부의 북부 주부(北部主簿)에 제수되었고, 1600년 즉 선조 33년 가을에는 군자감 판관에 제수되었으나, 대간(臺諫)에서 그의 임용에 이의를 제기하여 임명되지 못하였습니다.

뒤에 훈련도감 교훈관(敎訓官), 도체부 조련관(都體府操鍊官) 등에 임명되어 약 10년 동안 북부 변방 지역인 서북 지방을 출입하게 됩니다. 17세기 초 한교가 서북 지방을 출입하며 활동하게 된 것은 당시의 유동적인 북방 정세에 따른 것입니다.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조선은 만주 남부지역에서 새로이 흥기하던 누르하치의 건주여진 위협에 직면하였습니다. 임진왜란 이전부터 세력을 확대하여 압록강 중류까지 진출한 건주여진은, 1593년 해서여진 연합체인 호륜(扈倫) 4부를 격파하고 이어 백두산과 두만강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해나갔습니다. 건주여진의 위협이 증대함과 동시에 건주여진에 패하였던 세력의 일부는 두만강 유역으로 진출하여, 조선에 복속하였던 여진족인 이른바 반호(藩胡)를 약탈하는 등 조선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한교는 당시 새로이 대두하고 있던 여진족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여진 기병을 막을 새로운 전술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척계광의 또 다른 병서인 『연병실기(鍊兵實紀)』에 제시된 전차(戰車) 이용 전술에 주목하였습니다.

『연병실기』는 척계광이 남방의 왜구를 물리친 이후 북방의 몽골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한 전차 이용 전술을 소개한 병서입니다.

『연병실기』의 전술은 적 기병이 나타나면 수레 주위에 방패를 설치하고, 신식 후장식 화포인 불랑기(佛狼機) 2문을 장착한 전차 128량을 방진의 외곽에 배치하고, 그 안에 기병과 보병을 대기시켰다가 화포 사격으로 적의 기병 공격이 약화 되면, 기병과 보병을 돌격시켜 적을 공격하게 하는 전술이었습니다. 한교는 북방의 여진 기병에 대응하기 위해 절강병법과 다른 새로운 전술을 조선군에 적용할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그는 전차를 만들어 평안도에서 시험하기도 하였으며, 조선에 적합한 전차 운용 전술을 고안하여 그 결과를 1612년, 광해군 4년에 『연병지남』을 저술 편찬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악이 많은 조선에 전차를 운용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많아 이 전술은 결국 채택되지 못하였지만, 이후에도 조선의 전차 운용과 관련한 많은 논의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책이 편찬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613년, 광해군 5년에 일어난 계축옥사(癸丑獄事)로 인해, 서인이었던 한교는 과거 시험에 아버지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전라도 순천(順天)으로 귀양을 가서 2년여를 보내게 됩니다.

계축옥사는 대북의 이이첨이 거짓 역모 사건을 일으켜 선조의 적자인 영창대군과 인목대비의 아비인 김제남(金悌男)을 죽이고 영창대군을 비호하던 세력을 조정에서 제거한 사건입니다. 계축옥사 당시 한교가 누명을 쓴 것은 그가 병법에 매우 능한 서인계 인물로서 대북 세력에 대해 위험스러운 인물이었으므로 사전에 조치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교는 2년 후인 1615년, 광해군 7년에 사면되어 도체부 조련관, 도원수 참모관 등에 제수되었습니다. 이후 황해도 곡산부사를 마친 이후 벼슬길에서 물러나, 한성 인근의 아차산(峨嵋山) 아래에 은거하며 지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이첨(李爾瞻) 등이 주도한 인목대비 폐모 모의를 이귀와 함께 좌절시키는데 일조하기도 하였습니다.

1623년 3월 인조반정 당시, 한교의 문인이었던 이귀, 최명길 등과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장악원 첨정(掌樂院僉正)에 제수되고 이어서 4월 곡산군수에 다시 임명되었습니다. 그해 10월에는 인조반정의 공로로 정사공신(靖社功臣) 3등 서원군(西原君)에 봉해지고 통정대부로 품계가 오르게 됩니다.

이듬해인 1624년 정월에 일어난 이괄(李适)의 난 당시, 한교는 어영사(御營使) 이귀의 부장(副將)으로 출전하여 임진강 방어를 담당하였으나, 반란군의 남하를 저지하는데 실패하고 백의종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반란군에 의해 국왕으로 옹립되었던 흥안군 제(興安君璉)를 사로잡은 공로를 인정받아 복직되었습니다.

1625년 인조 3년 11월, 그는 강원도 고성군수(高城郡守)에 제수되었으나 이듬해 파직되어 돌아온 이후, 광나루 근처에 집을 짓고 두문불출하면서 병을 이유로 관직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병이 깊어지자 그는 서북 지방에 후금의 침입을 미리 대비할 것을 아뢴 상소를 올렸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소를 올린지 얼마 지나지 않은 1627년 인조 5년 정월 12일 향년 72세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사후 자헌대부 호조판서 겸지의금부사 청성군(淸城君)으로 추증되었습니다. 그가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나지 않아 후금의 침공인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모두 그의 선견지명에 탄복하였다고 합니다.

정묘호란의 발발로 인한 혼란으로 장례를 제대로 지내지 못하다가, 후금과의 강화가 체결되고 인조가 피난지인 강화도, 즉 강도(江都)에서 돌아온 이후인 그해 5월 8일 조정에서 관리를 보내고 예를 갖추어 여주 천령현(川寧縣)에 장사를 치렀습니다.

한교의 저술 중 『기효신서절요』 등 병서를 제외하고는 그의 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이 흩어져 책 이름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서열의 자식이라는 출신상의 하자과 함께, 성리학자이면서도 여러 학문 분야를 배척하지 않고 경세(經世)와 관련된 다양한 학문을 세상의 급박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그의 포용적 학문 태도로 인해, 성리학에 관련된 그의 저서는 다른 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문집인 『동담집(東潭集)』도 사후 간행되어 조선 말기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 249, 「예문고(藝文考)」에 그 책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세기 초반까지 남아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요 대학의 도서관 등에 『동담집』의 소장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그의 생애와 사상의 진면목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병지남』의 저자인 한교(韓嶠)라는 인물의 생애와 저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병지남』의 간행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5-3

### 『연병지남』의 간행 배경

지난 시간에는 『연병지남』의 저자인 한교(韓嶠)라는 인물의 생애와 그의 주요 저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병지남』의 간행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임진왜란 이후 북방 여진의 심상치 않은 동향과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이 이 책 간행의 주요 배경입니다. 1598년 말 노랑해전을 마지막으로 일본군이 조선에서 철수하고 임진왜란이 마무리되자 압록강 중상류 지역의 건주여진의 군사 활동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하여 백두산 일대와 두만강 상류를 넘어 두만강 하류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건주여진은 임진왜란 이전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였지만, 임진왜란 중 명나라 군이 대거 조선에 파병되면서 만주 일대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자 장백산부(長白山部) 등이 있는 백두산 및 두만강 중상류 지역으로 본격 진출하게 됩니다. 건주여진이 압록강 중상류를 넘어 두만강 일대까지 진출하자 조선은 매우 넓은 정면에서 건주여진과 국경을 접하게 됩니다.

이어서 건주여진은 만주 내륙에 있던 해서여진(海西女眞)의 여러 부족에 대한 공략을 본격화하고 두만강 하류까지 진출하는 등 17세기 초 광해군 초반에는 대부분의 여진 부족이 누르하치의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건주여진의 조선에 대한 위협은 매우 심각해졌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진 기병을 아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전술이 요구되었습니다.

광해군 초반 조선에서는 여진의 침입에 대비하여 여러 방어 전술이 대두되었는데, 대체로 몇 가지 방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하나는 기병이 우세한 여진과는 평원에서의 직접적인 전투를 피하고 대신 요충지에 성곽을 축조하여, 그곳에서 각종 화포를 갖추고 대항하는 방어 전술을 들 수 있습니다.

1614년 광해군 7년 기존의 조총 제조 관청인 조총청(鳥銃廳)을 확대하여 화기도감(火器都監)으로 개칭하여 각종 화기를 제작하고, 북방에 관방시설을 정비한 것은 이러한 방어전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성곽에서 화포를 갖추어 대응하는 소극적인 전술 이외에 또 다른 한 방안은 야지(野地)에서의 전투를 고려하여 기병의 돌격을 저지하는데 유용한 전투용 수레인 전차를 대량으로 제작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술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17세기 초 전차 운용 전술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구체적 전술을 제시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한교였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상이한 방어전략의 대두는 당시 각 정파 간의 국방 정책 차이에서 기인하는 면도 컸습니다. 내치(內治)를 중요시하고 국제정세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였던 북인 세력은 성곽에서 화포로 대응하는 수세적인 방어책을 중시하였고, 이에 따라 성곽 축조 및 화포와 조총의 제작 등에 주력합니다.

이에 비해 여진족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던 서인 세력은, 명나라와 함께 여진족에 대응하는 상황을 적극 고려하고 있었으므로 만주 일대에서의 전투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평원에서 싸우기에 적합한 전술과 군사제도, 무기 체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평원에서 전투하는데 적합한 전차와 기병을 중심으로 한 전술의 필요성은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한교가 저술한 『연병지남』의 편찬, 간행은 서인의 대 여진 방어전략의 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차를 운용하는 전술은 서인만이 고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해군대 좌의정을 지낸 북인인 한효순(韓孝純)도 1603년 선조 36년 가을에 여진족은 평원에서 돌진하는 것을 숭상하므로 전차가 없으면 이를 방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두 바퀴 즉 쌍륜(雙輪)과 외바퀴, 즉 독륜(獨輪)의 작고 가벼운 수레를 활용하여 전차, 포차(砲車), 노차(弩車)를 제작하고 호준포 등의 각종 화기를 사격하여 기병을 저지하는 전술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1613년 광해군 5년까지 후금에 대한 두 가지 방어 전략이 팽팽히 전개되다가, 대북파가 영창대군 및 반대파인 서인을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이른바 계축옥사(癸丑獄事)를 계기로 서인 세력이 급속히 몰락하면서 크게 변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계축옥사와 서인 몰락의 와중에 한교도 실권하여 귀양을 가게 되면서, 전차를 이용한 전술 논의는 급속히 쇠퇴하고 『연병지남』의 존재감도 급격히 약화됩니다.

대신 조선은 조총과 승자총통 등 개인 화기와 불랑기 등 다양한 화포 제작과 개량, 그리고 주요 접근로를 연하여 읍성과 산성 등 성곽 축조에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러한 수세적인 방어 전략은 이후 병자호란 참패의 한 원인이 되었지만, 청나라와의 군사력 격차가 컸던 조선 후기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구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조선의 우수한 조총 및 화포 운용 능력은 쉽게 수세적 전략을 채택하게 한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곽과 화기를 이용한 수세적인 군사전략은 조선 후기동안 계속 유지되어 『연병지남』이 조선 병학의 주류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후 일반인들에게 이 책이 널리 알려지지 못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병지남』의 간행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병지남』의 체재와 내용, 학술사적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5-4

### 『연병지남』의 체제와 내용, 학술사적 가치

지난 시간에는 『연병지남』의 간행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병지남』의 체제와 내용, 그리고 그 학술사적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연병지남』은 권의 구분 없이 한 책으로 되어 있으며, 본문은 한문으로 내용을 서술하고 이어서 언해(諺解)를 부기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거기보대오규식(車騎步隊伍規式)」, 「거기보합조소절목(車騎步合操小節目)」, 「거기보대조절목(車騎步大操節目)」, 「병거제(兵車制)」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보대오규식」은 한 전차[車] 부대를 지휘하는 거정(車正)의 역할, 총수(銃手), 살수(殺手), 궁수(弓手), 마병(馬兵) 각 12명씩으로 이루어진 한 대(隊)의 편성과 함께, 대오를 편성할 때 전차를 중심으로 하여 각 병종의 병사들이 서는 위치 및 전투 시 구체적인 역할 및 행동 요령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 기(旗), 즉 3개 대(隊) 또는 하나의 대가 하나의 거(車)를 편성할 때 그 구성 및 전투방식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전차 부대를 지휘하는 거정(車正) 한 사람은 한 수레[車=戰車]의 나아가고 물러서는 명령인 호령(號令)을 전적으로 담당하는데, 한 기(旗)가 한 수레로 편성되어 있으면 기의 지휘자인 기총(旗總)이 거정이 되고, 한 대(隊)가 한 수레로 편성되어 있으면 대의 지휘자인 대총(隊總)이 거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대총은 『기효신서』 등의 자료에서는 대장(隊長)이라고 합니다.

즉 거정은 전차와 이에 소속된 군사의 지휘관으로서, 전차 한 량과 군사 36명, 즉 세 개의 대가 모여 하나의 기(旗)를 이루면 기총이 거정(車正)이 되고, 전차 한 량과 군사 12명이 모여 하나의 대(隊)를 이루면 대총(隊總)이 거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전차 한 량과 한 기, 혹은 한 대의 군사들이 모여 하나의 전투 단위를 편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와 대는 『기효신서』, 『연병실기』 등 척계광의 군사 편제에 나오는 개념으로, 한 대는 대장(隊長) 1인과 군사 10명, 그리고 보조 병사인 화병 1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군사 편제이고, 한 기(旗)는 세 대(隊)가 모여 구성합니다.



총수, 살수, 궁수, 마병으로 이루어진 가장 작은 전투 단위인 대(隊)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궁수대(弓手隊)의 편성입니다. 궁수대는 이 책의 집필에 주요한 참고가 된 자료인 『연병실기』와 『기효신서』 등에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궁수대는 조선의 전통적 장기인 궁시(弓矢)를 운용하는 궁수로 이루어진 대(隊)로서, 임진왜란 중 설치된 훈련도감의 사수, 살수, 포수 등 이른바 삼수병(三手兵) 체제를 고려하면서 이 책이 저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중 새로이 편성된 당시 지방군인 속오군도 삼수병 체제로 편성되었으므로 『연병지남』은 당시의 군사적 상황에 부합한 것이었으므로 전차만 제작되면 유용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병종의 전투 모습 등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거기보대오규식」이 전차와 각 대(隊)의 편성 및 각 대(隊)별 전투 형태를 보여준다면, 「거기보합조소절목」은 전차, 기병, 보병을 통합하여 훈련하는 것인 이른바 합조(合操)의 절차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합조 훈련 순서는 먼저 군사 훈련을 하기 전, 전차 등 세 병종의 군사들이 무기를 지니고 말에 올라타고서 명령을 전달받기 위해 도열합니다. 훈련을 시작하기 직전 훈련을 담당하는 장수인 중군(中軍)이 총 지휘관인 주장(主將)에게 조련을 시작하겠다고 아뢴 이후, 먼저 앞에 나아가 적의 접근을 알리는 척후병인 당보군(塘報軍)을 내어 적의 동향을 살피도록 하고 아울러 숨어서 적을 공격하는 복병(伏兵)을 본대의 앞과 뒤에 내도록 합니다.

전방에 배치된 척후병이 적군의 출현 경보를 보내면 군사들이 전투 준비를 한 이후, 적군이 진에 접근하면 조총과 화전, 대포를 사격합니다. 화전(火箭)은 단순한 불화살이 아니고 가운데 추진체를 달아 스스로의 추진력으로 날아가는 작은 로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화기의 사격에도 불구하고 적군이 전차에 접근하면 각 병종의 병사들이 전차를 중심으로 싸워 물리칩니다. 적군을 물리치고 원래 위치로 돌아왔을 때 적군이 다시 공격하면 이에 대응하여 다시 적군을 물리치는 모습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후 군대를 거두어 최초 대열을 갖추었던 곳으로 물러난 이후, 적군이 패배한 후 산림이나 보리밭, 계곡 등에 복병을 숨기고 추격하는 아군 군사와 대적하는 상황, 전투 중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내리고 죄가 있는 자에게 벌을 내리고 조련을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거기보합조소절목」이 작은 규모의 전차, 기병, 보병을 운용하는 훈련을 다룬 것인데 비해, 다음의 「거기보대조절목」은 이들 병종을 대규모로 운용하는 훈련인 대조(大操)의 절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조의 훈련 순서는 먼저 조련이 있기 하루 전에 훈련을 알리는 조패(操牌)를 걸고, 훈련 당일에 군사들이 훈련장으로 가서 도열하는데, 그 모습은 전차와 포차 등이 교장의 좌우에 벌려 서 있고 보병들이 전차에 붙어 도열하며, 마병은 입장하면서 사열대인 장대(將臺) 좌우에 횡으로 도열하고 대장이 입장하기를 기다립니다.

군사들이 교장에 도열한 후 대장이 교장으로 입장하면 중군 이하의 지휘관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어 대장을 맞이합니다. 대장이 장대에 올라 앉으면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중군 이하의 모든 지휘관들을 대장 앞으로 모이도록 하고 명령을 하달합니다. 명령을 하달하면 지휘관들은 물러나 휘하의 지휘자인 거정(車正)에게 전투 중에 유념할 내용을 중심으로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어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 앉아 있는 군사들을 일으켜 세우고 무기를 들고 마병은 말을 타며 전투 훈련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 먼저 깃발과 군악이 앞으로 열을 지어 나오며 깃발로 신호를 하면, 전차, 기병, 보병의 지휘관들이 깃발 신호와 동일하게 행하며 휘하 부대에 다시 그 명령을 전달합니다.

행군은 마병, 중군, 깃발과 군악인 이른바 기고(旗鼓)에 이어 거병과 전차가 속한 기병대(奇兵隊), 보병대 등이 차례로 행군합니다. 행군 대열이 교장의 한 가운데 도착하면 가상의 적군 복병이 뒤에서 나타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적의 복병이 나타나면 뒤에 있는 정찰 마병인 초탐마병(哨探馬兵)이 깃발을 흔들며 적의 복병이 나타났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전차와 포차를 몰아 앞쪽에 진을 펴서 적군이 달려오지 못하도록 하고 마병은 전차 진의 안으로 들어가서 진을 펼치게 됩니다. 진을 펼친 이후 진의 앞뒤로 복병을 내어 적이 오면 기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적군이 계속 접근하면 총수와 궁수가 전차 앞으로 나아가 사격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적군이 우리 진의 100보, 약 120m 이내에 도달하면 천아성(天鵝聲) 나팔 신호에 따라 조총과 승자총통 등을 사격하도록 합니다.



천아성이란 한 번 긴 소리로 나팔을 부는 것으로, 천아성 나팔은 각 군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거나 혹은 총수(銃手)가 일제히 조총을 발사하고 궁수(弓手)가 일제히 화살을 발사하라는 신호로 사용되었습니다. 조총 등의 사격 이후 이어 화전 및 호준포, 불랑기 등의 화기를 총동원하여 사격합니다.

호준포는 경량 화포의 하나로 포신을 받치는 포가를 설치했는데, 아랫부분에는 양쪽 모두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못을 박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마치 호랑이가 앞다리로 서있는 것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적군이 화전 등의 일제 사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하여 50보 안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궁수들이 나아가 활을 사격하도록 하는데 활의 발사속도가 빠르므로 일종의 탄막 사격과 같습니다.

각종 화기와 궁시 사격에도 적군이 전차 앞에 이르면 전차와 함께 있는 근접전 군사인 패수(牌手), 도곤수(刀棍手), 파수(鈚手), 쾌창수(快鎗手) 등의 군사들이 적의 기병을 저지하거나 공격합니다. 진 안에 있던 마병들은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적군의 옆에서 달려 나와 적과 근접전을 행하게 됩니다.

쾌창은 봉 앞에 짧은 총열의 화승총을 붙인 것으로 한 번 사격 이후에는 봉으로 적을 때려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보병들이 적과 근접전을 할 때 마병들은 달려나와 마병이 가지고 있는 단병기인 편곤, 장도, 언월도, 쌍도 등을 사용하여 적을 공격합니다. 마병이 돌격하여 적을 밀어붙이며 아군 복병이 있는 곳에 도달하면 복병들이 옆에서 달려 나와 합세하여 적을 기습 공격합니다.

전투에서 적군을 물리치고 나면 병종별로 수십 보 정도 물러나 대오를 정돈합니다. 이어 대오를 거두고 돌아오던 중 적군이 다시 공격하면 이에 대응하여 적군에 대응하여 공격합니다. 이어 거짓으로 물러나며 복병이 있는 곳으로 유인하면, 복병이 적군을 차단하고 거짓으로 후퇴하던 본대도 몸을 돌려 적을 공격하며 적군을 물리칩니다. 이후 적군의 다음 공격에 대비하여 대기하다가 처음 출발하였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진영으로 돌아와 사각형의 진영인 방영(方營)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 절차는 먼저 중군이 방영 설치를 건의한 이후 지세가 좋은 곳에 오방기수(五方旗手) 등 각종 기수를 보내어 내진과 외진을 세우기 위한 기준을 잡도록 합니다. 내, 외진의 전후좌우 끝과 진의 출입문 위치에 오방기, 각기(角旗) 등을 세워 진을 세울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진을 칠 준비가 마치면 거병은 밖을 향해 진을 펴고 보병은 전차에 붙어 서 있으며 마병은 외진의 안으로 들어와 내진을 치게 됩니다. 방영을 친 이후에는 방영의 전, 후, 좌, 우로 정찰 마병인 탐마(探馬)와 복병을 내보내고 나면 방영의 군사들은 앉아서 휴식을 취합니다.





구체적인 각 병종 군사들의 전투 모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군사들이 쉬고 있을 때 적군의 북병이 방영의 전면에 나타나는 상황이 부여됩니다. 먼저 전면에 나간 탐마가 황기(黃旗)를 흔들며 적 북병의 출현 사실을 알립니다. 이 경보를 들은 이후 방영의 전면의 장령(將領), 즉 지휘관들이 명령을 전달하면 군사들은 전투 준비를 합니다. 방영의 전면의 앞에 적군이 100보 안에 이르면 조총과 승자총통, 화전, 대포 등을 신호에 따라 연달아 발사합니다.

각종 화기의 사격에도 불구하고 적군이 전차가 펼쳐진 진 앞에 이르면 앞에서 보았듯이 근접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근접 전투를 한 이후에는 방영의 동쪽, 서쪽, 북쪽 방면에서도 적군이 차례로 나타남을 가정하여 전면의 절차와 동일하게 전투 훈련을 합니다.

각 방면의 훈련을 마치면 이어서 각 방면에서 적군이 일제히 네 방면을 공격하려 한다는 상황을 부여하고 이를 각 방면의 탐마들이 경보합니다. 그러면 중군이 명령을 내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군사들이 조총 등을 사격하고 더욱 접근하면 근접전을 하며 방어하게 됩니다.

적군을 물리친 이후 진영으로 돌아와 땀감과 물을 구하기 위해 이를 담당하는 병사인 이른바 초급병(樵汲兵)을 내보냅니다. 이어 내진에 있는 마병들이 진영 밖으로 나가 말에게 물을 먹이고 신호에 따라 대오를 거두어 돌아옵니다.

방영을 설치하고 각 방면별로 훈련을 마친 이후 관기(官旗), 즉 장관과 기총과 대총 등의 지휘관을 불러 모아 명령을 하달하고 이어서 갑옷을 벗고 휴식하도록 합니다. 이어 펼쳐진 방영을 거두어 원래 출발하였던 곳으로 철수하기 위해 군사들은 일어나 대오를 정돈하고 철수 준비를 합니다.

출발 신호에 따라 전차와 보병이 촘촘히 이어 행군하고, 이어 중군과 기고(旗鼓), 다음은 마병이 행군하여 훈련을 처음 시작하였던 곳인 교장으로 돌아가 진을 펼칩니다. 교장에 도착한 이후 마병들은 신호에 따라 말에서 내려 양쪽으로 도열합니다.

군사들이 모두 도열하면 중군이 훈련을 마친 것을 대장에게 하직하고 병사들을 쉬게 합니다. 이어 시간이 있으면 군사들의 각종 무예를 시험합니다. 주로 무예는 근접전 병기인 장창, 당파, 낭선, 등패, 구창, 봉 등의 사용 절차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예 시험 후 대조의 마지막으로 훈련을 마치는 절차를 행하는데 교장에 세웠던 대장을 상징하는 깃발인 수자기(帥字旗)를 내리고, 이후 대장이 말을 타고 교장에서 퇴장하면 진을 파하고 군사들이 해산하면서 대규모 조련인 대조(大操)를 마치게 됩니다.

『연병지남』의 마지막 부분은 「전차제」로, 이 책 내용의 핵심적인 무기인 전차(戰車)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자세한 전차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연병지남』의 본문을 소개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대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연병지남』에서 소개하는 전차는 원래 선조대 무인이었던 정준봉(鄭峻鵬)이 고안하고 함경도 북병사 유형(柳珩)이 이를 채택하여 현장에서 운용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정준봉은 훈련원 주부로 있던 1603년 선조 36년 5월에 선조에게 상소하여 '윤검(輪劍) 방패(防牌)'를 만들어 적이 돌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주장한 인물로 무인이었던 정추(鄭鍾)의 3남이라는 사실만 알려져 있습니다.

정준봉이 언급한 윤검 방패라는 것은 방패를 두르고 검을 장착한 바퀴 달린 수레를 의미합니다. 유형은 정유재란 시기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의 막료로서 주요 해전에서 큰 공을 세웠고 전쟁 이후에는 경상우수사, 삼도수군통제사를 거쳐 1607년 회령부사 겸 북병사로 있으면서 정준봉이 고안한 전차를 개량하였습니다. 유형이 개량한 전차 제도를 한교가 채택하여 『연병지남』에 수록하였습니다.

『연병지남』에서 채택한 전차는 적의 공격을 막을 방패를 좌우에 둘러치고 창을 장치합니다. 그리고 진을 펼칠 때에는 전차에 달린 문을 옆으로 펼쳐 방패로 삼아 활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병지남』을 편찬할 때 많이 활용하였던 척계광의 『연병실기』에서 보이는 전차와 달리, 이 책에서는 전차를 이용하여 과감한 돌격을 하거나 전차를 이동하면서 화포를 사격하는 공격 방법 등은 없었으므로 보입니다. 이는 이 책의 전차 운용 전술이 『연병실기』에 비해 다소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전술 체계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준봉이 전차를 처음 개발하였던 1603년의 북방 정세는 상당히 험악한 상태였습니다. 누르차치의 건주여진의 세력이 두만강 하류 일대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만강 일대의 여진 세력도 팽창하여 8월에는 종성의 번호(藩胡) 부락 세 곳을 공격하여 번호들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번호는 6진이 있는 두만강 건너편에 거주하며 조선에 복속된 여진족으로 여진의 침입이 있으면 이를 경보하거나 물리치는 등 조선의 국경 일대의 울타리가 되었던 여진족입니다. 이들이 다른 여진에게 복속되었다는 것은 조선의 북방 방어체계가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진족은 이어 조선의 함경도 종성군의 진보인 동관(潼關)을 공격하는 등 매우 공세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진 기병을 저지하기 위해 정준봉과 함께 다른 한 인물도 전차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그해 가을 함경도 도순찰사(都巡察使) 한효순(韓孝純)은 여진족은 전차가 없으면 이들의 돌격을 방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변방에서 사용되던 무거운 수레 대신 당시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던 쌍륜(雙輪) 및 독륜(獨輪)의 가벼운 경량 수레인 경편소거(輕便小車)를 활용하여 전차, 포거(砲車), 노거(弩車)를 제작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를 기병과 보병을 아울러 운용하여 방진을 펼치고, 약노(藥弩), 상자노(床子弩) 등 기계활인 궁노(弓弩)와 함께 호준포, 삼안총, 일안총(一眼銃), 조취총(鳥嘴銃), 신화창(神火鎗) 등의 각종 화기를 사격하는 전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취총은 조총의 일종인 화승총으로 명군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삼안총은 짧은 자루에 총신이 세 개가 붙어 있는 휴대용 소총으로 차례로 불을 붙여 사격할 수 있어 기병들이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총신이 짧아 관통력이 약하여 조선 후기에는 신호용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북방의 위기가 고조되자 임진왜란 중 일본군에 대응하기 위해 절강병법을 도입, 보급하기 위해 창설된 훈련도감은 점차 증강되면서 이후 한성을 방어하는 군영으로 중요시되었습니다. 북방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은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절강병법에 더하여 『연병실기』에 의한 전차 중심의 군사 편제와 전술을 도입할 것을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1604년 선조 37년 12월에 훈련도감에서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등 조선의 남방 네 도는 『기효신서』의 전법, 즉 절강병법으로 가르치고, 북방 지역인 강원, 황해, 평안, 함경 등 네 도에서는 『연병실기』의 전법, 전차를 이용한 전술을 가르칠 것을 건의하여 선조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훈련도감에서는 한교로 하여금 전차[車], 기병, 보병을 조련하는 규목(規目)을 편찬하도록 하였습니다. 『연병실기』를 기본으로 하여 조선의 사정에 맞는 통일된 훈련 및 전술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후 한교의 『연병지남』 간행으로 구체화 되었습니다.

『연병지남』과 관련하여 살펴볼 병서가 한 종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책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무예제보번역속집(武藝諸譜翻譯續集)』이 그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절강병법에 필요한 6가지 무예를 정리한 한국 역사상 최초의 무예서인 『무예제보』의 편찬과 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무예제보』의 간행 이후에도 조선에는 이 6가지 무예에 더하여 다양한 근접전 무예인 단병(短兵) 무예가 추가로 소개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조선에 소개되는 단병 무예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병의 돌격을 저지하기 위한 새로운 무예와 함께 『연병실기』의 도입에 따른 마병의 무예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연병지남』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연병지남』의 살수대는 전차의 주위에서 적 기병의 돌격을 협동으로 저지하는 것이 주된 임무로서 등패수, 낭선수, 도곤수(刀棍手), 파수(鈹手)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등패수, 낭선수, 파수는 절강병법의 살수대에 이미 편성된 병종이지만 이 책에서 도곤수는 처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도곤수는 길이 3~4척의 칼날을 7척 정도 되는 자루에 꽂은 창(槍)의 일종인 협도곤(夾刀棍)을 가진 병사로 협도곤은 주로 보병이 기병에 대항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 무기입니다. 따라서 도곤수의 무예 훈련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연병지남』에는 전차 부대와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마병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마병은 편곤(鞭棍), 장도(長刀), 쌍도(雙刀), 구창(鉤槍), 언월도(偃月刀) 등의 여러 종류의 단병기를 장비하고 있습니다. 이중 편곤은 길고 짧은 두 개의 곤봉을 쇠사슬로 엮은 형태로 추수할 때 사용하는 도리깨와 비슷한 것으로 적을 내려치는데 편리한 무기입니다.

조선 후기 기병은 돌격하여 근접전을 할 때 이 편곤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쌍도는 양손에 든 칼입니다. 구창은 창날의 좌우에 가시가 있는 무기로서 보병이 말에 탄 기병을 끌어내리는데 사용한 창(槍)의 일종입니다. 언월도는 관우의 청룡언월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외날의 칼날에 긴 자루를 가진 무기로서 반달처럼 휘어있으므로 '반달 칼'이라는 뜻으로 언월도(偃月刀)라고 하였습니다.



편곤, 쌍도, 언월도, 구창은 『무예제보』에는 수록되지 않은 단병기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병기의 존재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지만 임진왜란 이전까지 조선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무기였습니다.

『무예제보』의 무예 이외에 새로운 무예가 소개되고 훈련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이들 무예를 정리한 책이 필요해졌습니다. 『무예제보』의 속집 간행이 필요해졌는데 그 결과가 『무예제보번역속집』입니다. 이 책은 1990년대 중반까지 서명만 알려지고 책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대구의 계명대학교 도서관에 이 책이 소장된 것이 알려지고 영인본(影印本)이 간행되면서 학계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책은 1권 1책으로 『무예제보』에서 누락된 대권(大拳)과 언월도, 구창, 왜검(倭劍), 협도곤,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 등의 무예와 일본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무예제보번역속집』의 간행으로 『연병지남』의 전술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두 책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편찬된 것은 『무예제보번역속집』의 발문을 한교의 동학인 최기남(崔起南)이 쓴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대 중반, 북인의 권력 장악 이후 수성 위주의 방어 전략 채택으로 야전에서의 적극적인 전투가 상대적으로 의미가 약해지면서 『연병지남』의 전술이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예제보번역속집』의 다양한 단병 무예의 필요성은 적어졌습니다. 『무예제보』는 조선 후기 훈련도감의 살수(殺手) 등 군사 훈련에 널리 활용되었으므로 여러 차례 간행되었지만, 『무예제보번역속집』이 최근에야 그 존재가 알려진 것도 이러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연병지남』은 광해군대 편찬된 직후 성곽에서의 방어를 중시한 조선의 소극적 군사전략 채택으로 이후 조선군의 주된 전술 체계로 채택되지는 못하였습니다. 1634년 말 일어난 병자호란에서 청의 군사력에게 일방적으로 패배한 이후에도, 조선은 청나라와의 군사력 격차로 인한 소극적인 방어 전략을 계속 유지하였으므로 전차를 중심으로 진을 펼치고 각종 화포와 단병기를 이용하여 야전에서 전투하는 『연병지남』의 전술은 채택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병학사적인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병지남』은 임진왜란 이후 북방의 기병에 대응하기 위해 명나라에서 도입된 『연병실기』의 전차 중심 전술을 검토하여 조선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병서로서, 17세기 이후 관련 전술 개발 기초 자료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진왜란 기간 중 절강병법을 담은 『기효신서』 도입으로, 조선이 보병 일색의 전술에 치중하던 것에서 나아가 새로이 대두되는 북방 기병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차, 기병, 보병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술이 소개되어 있어, 18세기 후반 정조 시대에 새로운 종합 병서인 『병학통(兵學通)』이 간행되기 이전까지 기병, 전차 등의 전술 개발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병학사적으로 볼 때 조선 후기 기병과 보병, 거병(車兵), 포병(砲兵) 등을 통합하는 전술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전술적, 병학사적인 측면과 함께 『연병지남』은 17세기 북방 여진의 위협을 받고 있던 조선의 전술적 모색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조선 후기의 전술에 대해 군영에서 훈련에 사용되던 『병학지남』이나 『병학통』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병서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연병지남』의 검토를 통해 17세기 북방의 위협에 대한 조선의 군사적 대응 양상의 하나의 실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군사사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차는 산이 많은 조선의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채택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포수를 중심으로 사수, 살수, 마병 등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병자호란 직전인 1634년 인조 12년 훈련도감에서 마병이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되고 이를 통합한 전술을 모색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병지남』의 군사사적인 의미는 상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차적으로는 이 책은 언해가 붙어 있어 17세기 초기 중요한 국어학 자료로서도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어학에서는 이 책의 언해가 이 시기 함경도 함흥 지방의 방언 특성을 보이는 한글 단어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전 한글 연구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함경도 지역의 표기를 일부 반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아직 논란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병지남』 간행 배경과 저자 한교의 생애, 그리고 이 책의 체재와 개괄적인 내용, 이 책의 자료적 가치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연병지남』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아울러 『연병지남』에 보이는 조선 후기의 군사용 신호 깃발의 종류와 운용 방식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WEEK

## 5

## What Kind of Book is Yeonbyeongjinam?

## 5-1

## What Kind of Book is Yeonbyeongjinam?

Hello, students. I'm Roh Young-Koo, one of the lecturers in this course titled <Revisiting Korean Classics>, and I'm going to give you a lecture about Yeonbyeongjinam (Guide to Military Drill). This is the fifth lecture of this course, and we'll talk about "What kind of book is Yeonbyeongjinam?" Yeonbyeongjinam is a material that has not been known to the general public until now, but in Korean linguistics, it has attracted attention early on as a material with Korean notation of the early 17th century, because there is a vernacular edition of this book. But it is basically a book on strategy, from the early 17th century, and is not very simple.

In this class, I would like to give you the bibliographic introduction of this book, and talk about the background of the publication, the format, and the outline of this mid-Joseon military book, and then introduce the author, Han Gyo.

Finally, I will briefly mention the value of this book as a research material, and through this, I will examine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s around Joseon in the 17th century and its response in terms of military science. And in the next class, we'll read some important parts of this book and look at the details to get a glimpse of Joseon's military science. Most of you have probably never heard of Yeonbyeongjinam unless you are studying the history of the mid-Joseon period. Yeonbyeongjinam is a military training book written in 1612, the 4th year of Gwanghaegun's reign, by Han Gyo, a military scholar also known as a neo-Confucianist. It was first introduced to academia not as a material related to military history. Surprisingly, Korean linguists first started to recognize its value. Because this book has both texts in Literary Chinese and Korean translations in Hangeul, they used it as material to study the Korean language in the early 17th century.





The significance of this book as a source of military history in the early 17th century began to be noticed in early 2000, when I published a paper that introduces this book's format and details in the journal Literature and Interpretation No. 14. Since then, I have had the opportunity to publish an annotated and translated version of Yeonbyeongjinam as one of the Revisiting Our Classic Series, organized by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now we can read the whole content of this book with ease.

Next class, we will explore the life and writings of Han Gyo.





## 5-2

## The Life and Writings of Han Gyo

This time, let's take a look at the life and writings of Han Gyo, the author of Yeonbyeongjinam.

Han Gyo was a military scholar in the mid-Joseon period, who was very unusual and special. Although he was a Neo-Confucian scholar who studied under Yulgok Yi I and Ugye Seong Hon, he joined Hullyeondogam (the Military Training Command) in the wake of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compiled various new military books including Yeonbyeongjinam. He is now noted as a contributor to laying the foundation for military science in the late Joseon Dynasty. His courtesy name is Sa-ang, his pen name is Dongdam, and the clan is from Cheongju.

Han Gyo was born on November 30, 1556, the 11th year of King Myeongjong's reign, as the fifth-generation descendant of Han Myeong-hoe, a famous figur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His father was an illegitimate son, and this inherent disadvantage as an offspring of illegitimate child became an ordeal in his life, but at the same time, it made him more flexible in accessing various fields of study than other Neo-Confucianists.

Han Gyo stood out early in his childhood for his outstanding qualities, and he learned Neo-Confucianism from Yulgok Yi I and Ugye Seong Hon as he grew older. In the early days of his studies, he was Yi I's student.

However, when he claimed that only qi issues, Seong Hon, who was a friend of Yi I, disagreed with him and supported Yi Hwang's claim that li also issues, and contended that both li and qi issue simultaneously.

In the midst of six years of debate between Seong Hon and Yi I, Han Gyo supported Seong Hon, and joined Jo Heon, Hwang Shin, Yi Gwi, and Jeong Yeop to study under Seong Hon. He became a member of the school of Seong Hon along with Oh Yun-gyeom, Choe Gnam, and An Bangjun, who had been under Seong Hon.



This led to Han Gyo's connection with Yi Gwi and Choe Ginam as he published military books and participated in the Injo coup after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It seems that his understanding of the study of ritual deepened as his knowledge of Neo-Confucianism increased under Yi I and Seong Hon.

This is reflected in his writing of Garyeboju (Useful Explanation of Family Ritual), although it is not existent. He wrote many other books related to Neo-Confucianism, such as Hongbeomyeonui, Sachildo Sulbyeonui, Sohaksokpyeon, and Shim-uigo, but unfortunately, they are not existent now, either. In addition to Neo-Confucianism, Han Gyo read through books of various fields and was well-versed in astronomy, geography, divination, and military science.

In April 1592, when the Japanese Invasion occurred, Han Gyo gathered hyangbyeong, that is, righteous army, fought against Japan and distinguished himself in several battles, and for this, he was appointed as chambong (the ninth junior rank official) in Sajaegam (Provisions Agency). The following year, when the Japanese military retreated from Hanseong, Yu Seong-ryong, who was in charge of coping with the war as the Chief State Councilor, praised the ability of Han Gyo, who was conversant with books on military tactics, and appointed him as nangcheong (staff officer) of Hullyeondogam, a newly established military camp.

In early January of that year, in the Battle of Pyongyang Castle, the Ming army won a big victory using a new tactic, the Zhejiang Tactics. In this battle, the Ming army used various artillery and fire arrows called hwajeon to get ahead of the Japanese army from a long distance, and effectively responded to the Japanese military's specialty, the close-range combat, by intensively operating military forces with new close combat weapons such as shields, ranseurs, langxians, and long spears.



Seeing that this tactic, known as the Zhejiang Tactics, was effective in defeating the Japanese army, Joseon wanted to learn it. In particular, after hearing that this tactic was in Jixiao Xinshu, New Text of Practical Tactics, by Qi Jiguang, a general of the Ming Dynasty, Joseon tried to obtain the book. Jixiao Xinshu is a military book containing the tactics devised by Qi Jiguang to subjugate the Japanese raiders who invaded Zhejiang and Fujian, the southern regions of Ming.

Considering the narrow roads and many wetlands in this area, Qi Jiguang equipped with a large number of lightweight artillery including crouching tiger cannon, and personal firearms such as muskets to overpower the Japanese, and introduced new weapons for close combat such as langxians, ranseurs, shields, and long spears to confront the excellent swordsmanship of the Japanese. In addition to strong firepower through various artillery, the Ming army made collaborated attack on the Japanese army in 'dae,' a basic combat unit of 10 soldiers. With this tactic, the Ming army successfully defeated the Japanese.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Joseon acquired various editions of Jixiao Xinshu through various routes such as military camps and envoys, and tried to organize and train the Joseon army according to the book immediately. As part of this, Yu Seong-ryong had Han Gyo interpret the book. When the Zhejiang Tactics became accessible through this effort, he created Hullyeondogam (Military Training Command) in the autumn of 1593 as a new military camp to spread the tactic.

Hullyeondogam consisted of posu (musketeers), sasu (archers), and salsu (assault soldiers) for close combat. Joseon was traditionally excellent at archery, and it was not hard to train musketeers if they could practice volleys. However, assault soldiers were made up of soldiers with shields, langxians, long spears, and ranseur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Jixiao Xinshu, and their operation was not known. Therefore, in order to fully train them for the Zhejiang Tactics, they had to learn the skills of those weapons.



To solve this problem and train assault soldiers for close combat, by the order of King Seonjo, Han Gyo put together the training method based on Jixiao Xinshu, asking around the generals of the Ming military camps if there were difficult points to understand. And based on this, he also started compiling practical martial arts books to spread the skills of assault soldiers.

Short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Hullyeondogam and the beginning of full-scale military training, Han Gyo suffered the successive deaths of his parents. However, at the time when various types of military books were urgently needed to train soldiers, they could not allow Han Gyo to mourn for three years. King Seonjo ordered gibok, a system that made officials who took leave of absence to mourn for their families do their duties, to proceed with the compilation of related military books such as martial arts books.

Compiled through this process, Gihyoshinseojeolyo (the Summary of Jixiao Xinshu), Muyejebo (Martial Arts Illustrations), and Joryeondosik (Training Diagrams) are the definitive outcome of his study on military books. The Summary of Jixiao Xinshu summarizes the original theory of military science among the contents of Jixiao Xinshu, and Training Diagrams summarizes the training procedures of Jixiao Xinshu, which became the basis for the most important military training book, Byeonghakjinam (A Guide to Military Science), of the late Joseon Dynasty. Martial Arts Illustration is the first martial arts-related military book in Korea, which summarizes the six martial arts required for the Zhejiang Tactics: cudgels, shields, langxians, long spears, ranseurs, and long swords. This book, with descriptions of the continuous movements of martial arts in more detail than Jixiao Xinshu, shows Han Gyo's profound understanding of military books. This book is also noteworthy because it served as a prototype of Muyedobotongji (Comprehensive Illustrated Manual of Martial Arts), which was later compiled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When major military books such as The Summary of Jixiao Xinshu were completed, Han Gyo immediately went down to Toechon in Gwangju, Gyeonggi-do, and spent his time to mourn for his parents that he had not been able to do. After completing his mourning period, he was ordained as the northern jubu (keeper of records) of Hanseong City Administration, and in the fall of 1600, the 33rd year of King Seonjo's reign, he was ordained as pan-gwan (assistant prefect) of Gunjagam (Military Provisions Agency), but was not appointed due to objections from Daegan (Censorate).



Later, he was appointed as an instructor of the Hullyeondogam and a training officer of Dochebu (Office of the Supreme Commander), and for about 10 years, he went in and out of the northwestern region of the northern periphery. In the early 17th century, Han Gyo went in and out of the northwestern region because of the volatile political situation there at that time.

Around the Japanese Invasion, Joseon faced the threat of the new rising Jianzhou Jurchens of Nurhaci in southern Manchuria. Jianzhou Jurchens, who expanded their power to the midstream of the Yalu River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defeated the four tribes of Hulun, an alliance of Haixi Jurchens established in 1593, and expanded their power to Mt. Baekdu and the Tumen River. As the threat of Jianzhou Jurchens increased, some of the forces that lost to them advanced to the Tumen River basin and looted the so-called Hunho, Jurchens that belonged to Joseon, which pressured Joseon a lot.

Han Gyo argued that it was urgent to develop new tactics to stop the Jurchens in order to effectively subdue the newly emerging Jurchen cavalry. He paid attention to the combat wagon tactics presented in another military book by Qi Jiguang, Lianbing Shiji (Record of Military Training). Lianbing Shiji is a military book that introduces the tactics using combat wagons, designed to confront Mongolia in the north after Qi Jiguang defeated the Japanese in the south. The tactic of this book is to install shields around the cart when enemy cavalry appears, with 128 combat wagons equipped with two breech-loading swivel guns, which was the new breech-loading type cannon, placed on the outskirts of the square, and cavalry and infantry getting ready in it.

So when the enemy's cavalry attack is weakened by gunfire, the cavalry and infantry can charge and attack the enemy. Han Gyo actively insisted on applying new tactics other than Zhejiang Tactics to the Joseon army to cope with Jurchen cavalry in the north.





He actually built combat wagons and tested them in Pyeongan-do, devised a strategy for combat wagon operation suitable for Joseon, and compiled *Yeonbyeongjinam* with the results in 1612, the 4th year of Gwanghaegun's reign. However, this tactic was not adopted in the end, due to many objections that it was not suitable to operate combat wagons in mountainous Joseon, but it played as a pioneering role in many discussions on the operation of combat wagons in Joseon.

Not long after the book was compiled, in 1613, the 5th year of Gwanghaegun's reign, *Gyechuk Oksa* (Treason Case of 1613) occurred, and Han Gyo, one of Seoin (Westerners), was exiled to Suncheon, Jeolla-do, under the false charge of writing the wrong name for his father on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Gyechuk Oksa* is an incident in which Yi Icheom of the Greater Northern faction fabricated a false conspiracy, killing Prince Yeongchang, Seonjo's first-born, and Kim Jenam, the father of Queen Inmok, and removing the forces that protected the Prince from the court. Han Gyo was framed in this incident because he was a Westerner, very good at military science, and a potentially dangerous person to Greater Northern faction. In a way, it was more or less proactive.

Two years later, in 1615, the 7th year of Gwanghaegun's reign, Han Gyo was pardoned, and was ordained as a training officer of Dochebu and a chief of staff of Dowonsu (Supreme Field Commander). After that, he resigned from his government post after completing his duty of the Magistrate of Goksan-bu, Hwanghae-do, and lived in seclusion at the foot of Mt. Acha near Hanseong. During this period, he and Yi Gwi thwarted the plot to abolish the Queen led by Yi Icheom and others.





At the time of Injo's coup in March 1623, h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coup, along with his colleagues including Yi Gwi and Choe Myeong-gil, and was appointed as cheomjeong (the 4th junior rank official) of Jangakwon (Royal Music Academy), and then appointed again as the Magistrate of Goksan-gun in April. In October of that year, he was appointed as Lord of Seowon, the third-highest Jeongsa Gongshin (meritorious retainer for correcting the nation), for his contribution to Injo's coup, and the rank was raised to Tongjeong Daebu (the third senior rank official).

The following year, when Yi Gwal's rebellion broke out in January 1624, Han Gyo participated in the defense of the Imjin River as a deputy general of the Eoyeongsa (Commander of Royal Guards) Yi Gwi, but failed to stop the rebels from moving south, resigned, and fought as a commoner. But soon after, he was reinstated, for capturing the Heung-an-gun, who had been crowned king by the rebels.

In November 1625, he was appointed as the Magistrate of Goseong-gun, Gangwon-do, but after being dismissed and returning from his post the following year, he built a house near Gwangnaru and stayed away from the court with an excuse of illness. As his illness worsened, he filed an appeal to prepare for the invasion of the Later Jin in the Northeast, but it was not adopted. He died at the age of 72 on the 12th of January, 1627, the 5th year of King Injo's reign, not long after this appeal was filed.

He was posthumously granted the Minister of Hojo (Ministry of Taxation), the Chief of Uigeumbu (State Tribunal), and the Lord of Cheongseong. Within a few days of his death, the Later Jin invaded Joseon, and everyone admired his foresight.

The funeral was not properly held due to the chaos caused by the outbreak of the invasion, but after the peace with Later Jin was signed and King Injo returned from the refuge Ganghwa Island, or Gangdo, on May 8, the court sent officials to give a proper funeral in Yeosu Cheonryeong-hyun.





Except for military books such as the Summary of Jixiao Xinshu, most of the writings of Han Gyo, were scattered shortly after his death, and only the titles are passed down. This was because, due to his birth defects as a child of an illegitimate son, as well as his inclusive academic attitude, which did not reject various fields and considered them pertinent to governing the world urgently, his writings about Neo-Confucianism were rejected by other scholars.

His collection of writings, Dongdamjip, was also published posthumously and the name of the book was recorded in Jeungbomunheonbigo (Revised Compendium of Documents) vol. 249, Yemungo, which was compiled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so it is certain that it remained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fully grasping the true nature of his life and thoughts is difficult as Dongdamjip has not been identified in the libraries of major universities until today.

This class, we looked at the life and writings of Han Gyo, the author of Yeonbyeongjinam. Next class, we will look at the background of the publication of Yeonbyeongjinam.





### 5-3

### Background of the Publication of Yeonbyeongjinam

In the last class, we looked at the life of Han Gyo, the author of Yeonbyeongjinam, and his major writings. This time, let's take a look at the background of the publication of Yeonbyeongjinam.

As I briefly mentioned in the last lecture, the unusual trend of northern Jurchen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Joseon's response to this, are the main background of this book's publication. At the end of 1598, after the Battle of Noryang, Japanese troops withdrew from Joseon and the Invasion was over. However, Jianzhou Jurchens' military activities in the upper-middle Yalu River area became more active and influenced the area beyond Mt. Baekdu and the upper Tumen River to the lower Tumen River area.

Jianzhou Jurchens formed a significant force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but as a large number of Ming troops were dispatched to Joseon during the War, Ming's influence over Manchuria weakened, and the Jurchens entered the upper reaches of Mt. Baekdu and the Tumen River. As Jianzhou Jurchens crossed the upper middle Yalu River and advanced to the Tumen River area, Joseon had to face them on a very wide front.

Jianzhou Jurchens went on to launch a full-scale attack on various tribes of Haixi Jurchens, who were located in inland Manchuria, and advanced to the lower reaches of the Tumen River. As such, in the early 17th century, most of the Jurchens came under Nurhaci's control. As a result, Jianzhou Jurchens became a very serious threat to Joseon, and a tactic was required to effectively defend the outstanding Jurchen cavalry in the field.

In the early days of Gwanghaegun's reign, several defense tactics emerged in preparation for the invasion of Jurchens, which can be summarized in several way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s is the defense strategy of avoiding direct combat with cavalry-dominated Jurchens on the plains and building fortresses on key points instead, where various artillery pieces are equipped.



It was in accordance with this defense strategy that the existing Jochong-cheong, the musket manufacturing office, was expanded and renamed as Hwagidogam, where they produced various firearms, and the defense installation in the north was renovated in 1614, the 7th year of Gwanghaegun's reign.

In addition to the passive tactics of responding with artillery in the fortress, another option was to consider fighting in the field with mass-produced combat wagons, which were the carts for the battle to stop cavalry from charging and responding with new tactics using them. In the early 17th century, Han Gyo was the main figure who actively insisted on using tactics of combat wagon operation and suggested specific tactics.

The rise of these two different defense strategies was largely attributed to differences in defense policy between the factions at the time. The Northerners, who valued internal governance and wanted to respond more flexibly to the international situation, focused on defensive defense from fortresses using artillery, so they insisted on building fortresses and making artillery and muskets.

On the other hand, the Westerners, who held a strong stance against the Jurchens, were actively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responding to them in cooperation with the Ming, so they had to assume a battle in Manchuria. In this case, they had to consider new tactics, military system and weapons appropriate for fighting on the plains.

Here, the necessity of tactics centered around combat wagons and cavalry, suitable for combat on the plains emerged. The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Yeonbyeongjinam, written by Han Gyo, was one of the ways reflecting the Westerners' defense strategy.




The tactics using combat wagon operation were not considered only by the Westerners. Han Hyosun, a Northerner who served as the Second State Councilor of Gwanghaegun, also argued in the fall of 1603, the 36th year of King Seonjo's reign, that Jurchens admired rushing in the plains, so it would be difficult to defend without combat wagons. He also proposed a tactic to make combat wagons, gun carriages, and ballista carriages, using small and light carts of double or single wheels, and stop cavalry by shooting various firearms such as crouching tiger cannons.

Until 1613, the fifth year of Gwanghaegun's reign, the two defense strategies against Later Jin had made a tense confrontation, and the so-called Gyechukoksa, which the Greater Northern faction brought about to eliminate Prince Yeongchang and Westerners, the opposing party, triggered the rapid fall of the Westerners, which changed the situation a lot.

As I said last time, in the midst of the fall of the Westerners due to Gyechukoksa, Han Gyo also lost power and was exiled. The discussion of tactics using combat wagons, as well as attention to Yeonbyeongjinam rapidly declined.

Instead, Joseon produced and improved various types of firearms such as muskets, hand cannon, and breech-loading swivel guns, and concentrated on the construction of fortresses on the main pathways. This defensive defense strategy later led to the crushing defeat at the Qing Invasion, but it was difficult to use an active and aggressive military strategy in the late Joseon Dynasty when the gap between the military powers of Joseon and Qing was huge. In addition, Joseon's excellent ability to operate muskets and artillery made it easier to adopt a defensive strategy.

Therefore, the defensive military strategy using fortresses and firearms continued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making it difficult for Yeonbyeongjinam to become the mainstream of Joseon's military science. Because of this, the book was not widely known to the public.



In this session, we briefly looked at the background of the publication of Yeonbyeongjinam. Next time, we will look at the format, contents, and academic significance of Yeonbyeongjinam.

**5-4****The Formant, Contents, and Academic Significance of Yeonbyeongjinam**

Last time, we looked at the background of the publication of Yeonbyeongjinam. In this session, we will look at the format and contents of Yeonbyeongjinam, and its academic significance. Yeonbyeongjinam is a book with just one volume, and the text i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followed by vernacular annotations. The table of contents is largely divided into four parts: Geogibodaeogyusic (the Basic Formation), Geogibohapjosojeolmok (Small-scale Combined Training), Geogibodaejojeolmok (Large-scale Combined Training), and Byeong-geoje (the Structure of combat wagons).

The Basic Formation details the role of geojeong, who commands a combat wagon squad and the organization of dae (squad) consisting of 12 soldiers, including musketeers, assault soldiers, archers, and cavalymen. And it elaborates on the positions of each group of soldiers surrounding the combat wagon in a formation, their specific roles and movements in a combat. It also shows how to organize geo (combat wagon corps) with one gi (platoon), equivalent to three dae, or with only one dae, and how they should fight with it.

For example, a geojeong, who leads a combat wagon squad, is responsible for the command of the combat wagon going forward and back, And if a gi is organized for one combat wagon, gichong, the platoon commander, becomes the geojeong, and if a dae is organized for one combat wagon, deachong, the squad commander, becomes the geojeong. Deachong is called deajang (a squad captain) in documents such as Jixiao Xinshu.

In other words, a geojeong is the commander of a combat wagon and soldiers belong to it, so when a combat wagon and 36 soldiers, or three dae, form a gi, the gichong becomes the geojeong, and when a combat wagon and 12 soldiers form a dae, the daechong becomes the geojeong. So, a combat wagon and a squad or a combat wagon and a platoon assemble to form a battle unit.





Gi and dae are concepts that come from Qi Jiguang's idea of military organization, presented in Jixiao Xinshu and Lianbing Shiji, and one dae (squad) consists of 12 people, including a commander, 10 soldiers, and a cook and porter soldier called hwabyeong, and one gi (platoon) is made up of three dae.

Dae is the smallest unit of combat made up of musketeers, assault soldiers, archers, and cavalymen, and the archer squad is particularly noticeable among them. Archer squad is not mentioned in the main references used to write this book, such as Jixiao Xinshu and Lianbing Shiji.

Archery was a traditional strong point of Joseon, and the inclusion of the archer squad shows that the author wrote this book while considering the so-called samsubyeong (three combat forces) system of archers, assault soldiers, and musketeers in Hullyeondogam, installe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Sogogun, the local military forces newly organized during the Imjin War, was also organized in samsubyeong system, so Yeonbyeongjinam was in line with the military situation of the time, and was ready to be used if only combat wagons were built. I will talk about the details of each battle force in the next class.

While the Basic Formation shows the organization of each combat wagon and squad and their battle forms, Small-scale Combined Training describes the procedure of combined training, which integrates combat wagons, cavalry, and infantry.

Combined training begins with three types of soldiers lined up on horseback with weapons to receive orders. Then, jung-gun (chief of staff), who was the general in charge of the training, reports jujang (commander-in-chief) that he would start the training. He first sends out dangbo-gun, scouts who go ahead of others and inform the enemy's approach, to look at the enemy's movements, and places soldiers to hide and ambush the enemy in front of and behind the main battalion.



When the scouts stationed in the front send an alert for the approach of the enemy, the soldiers prepare for battle, and start to fire muskets, hwajeon (fire arrows), and cannons when the enemy come near the camp. Hwajeon is not just arrows with fire, but it is like a small rocket that flies with its own propulsion with a propellant.

If the enemy approaches the combat wagon despite the firing of various firearms, soldiers of each kind surrounding the combat wagon fight and defeat the enemy. The book describes that the enemy may attack and be defeated again after their first defeat and the soldiers' return to their original position.

After that, the army retreats to where it was first in line, and is drilled to cope with the situation where the defeated enemy hides soldiers in forests, barley fields, or valleys to ambush our soldiers. Finally, the meritorious soldiers are rewarded, and the sinful ones were punished at the end of the training.

While the Small-scale Combined Training deals with the operation of small combat wagons, cavalry, and infantry, the following Large-scale Combined Training introduces the procedure of greater operation, a training of these soldiers on a large scale.

If a large-scale combined training is scheduled, a plaque to announce the training is hung on the previous day, and on the day of the training, the soldiers go to the training ground and line up. Combat wagons and artillery stand on the left and right sides of the ground, the infantry are positioned next to the combat wagons, and the cavalymen line up horizontally on the left and right sides of jangdae, the reviewing stand, and wait for the commander-in-chief to enter.

After the soldiers line up on the training ground and the commander-in-chief enters, all commanders below jung-gun kneel down and greet him with courtesy. When the commander-in-chief sits on jangdae, all commanders below jung-gun gather in front of the commander-in-chief to receive the order. When the command is issued, the commanders step down and deliver the command to their geojeong, focusing on what to keep in mind during the battle.



They then make the sitting soldiers rise to begin the training and take up weapons, and the cavalymen climb up the horses and prepare themselves for combat training. To begin the training, flag bearers and drummers first line up, signaling with flags, and commanders of combat wagons, cavalry, and infantry deliver the commands back to their subordinate units simultaneously.

The march is in the order of cavalymen, jung-gun, flags and drums, the cavalry with the combat wagon soldiers and the combat wagons, and infantry. When the marching formation arrives in the middle of the training ground, a fictional enemy ambush occurs from behind.

Then, chotammabyeong, the reconnaissance on horseback at the rear of the formation waves a flag to inform them of the enemy ambush. Then, they drive combat wagons and gun carriages, line them up in front of the enemies so that they can't rush in, and the cavalymen go behind the combat wagons and line up. After the lineup, ambushes are prepared at the front and back of the camp so that they can surprise the enemy when they come.

If the enemy continues to approach, the musketeers and archers get ready to fire in front of the combat wagon, and if the enemy reaches within 100 steps from our camp, which was approximately 120m, they fire the muskets and hand cannons on the signal of Cheon-a-seong.

Cheon-a-seong is a long blow of bugle, which was used as a signal for each army to shout in unison, or for the musketeers and archers to fire arrows in unison. Following muskets, all the firearms such as hwajeon, crouching tiger cannons, and breech-loading swivel guns will be fired at o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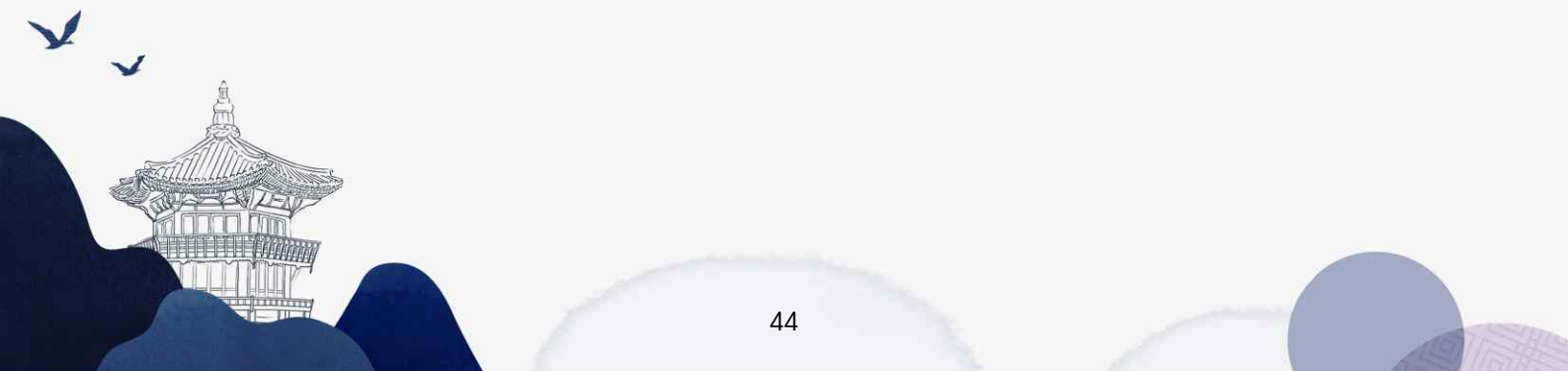


A crouching tiger cannon is one of the lightweight artillery pieces with a gun carriage supporting the barrel, and the bottom part is nailed to secure both sides. It has such a name because it looks like a tiger standing on its front legs. If the enemy continues to advance despite the salvo fire and enters within 50 steps from camp, archers will go ahead and shoot the arrows, and the shootings are done so quickly that they are like a kind of barrage fire.

And when the enemy reaches the vicinity of the combat wagons even through the barrage and arrows, the close combat soldiers such as paesu (shielders), dogonsu (spear-swordmen), pasu (ranseurmen), and kwechangsu (cudgel-gunmen), stop or attack the enemy cavalry. The cavalymen in the camp are divided into left and right, running from the side of the enemy and fighting in close combat.

Kwechang is a cudgel with a short matchlock attached to the front. After you first shoot at the enemy, you can hit with the cudgel. When the infantry are in close combat with the enemy, the cavalymen run out and attack the enemy using their melee weapons such as flails, long swords, guandaos, or double swords. When the cavalry charges and pushes the enemy to where our ambush assault soldiers are waiting, they rush from the side and join forces to attack the enemy.

After defeating the enemy in battle, soldiers back off dozens of steps and arranges the formation by each branch of arms. Then, if the enemy attacks again on the way back from the formation, they attack again in response to the enemy. And they pretend to withdraw and lure the enemy to the place where the ambush assault soldiers are ready, the ambush assault soldiers block the enemy, and the falsely retreating main force, turns around to attack the enemy and defeats them. After that, they stand by for the enemy's next attack for a while and return to the camp where they first started.





Upon returning, they set up bangyeong, a square camp. The procedure is like this: First, jung-gun suggests the installation of the square camp, and sends various flag bearers, including obang-gisu (soldiers holding flags of five colors representing five cardinal directions), to places with good terrain to set standards for inner and outer camps. Then they prepare to build the camp by setting up obang-gi and gakgi (flags for positioning) at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ends of the inner and outer camps as well as the entrance door of the camp.

When it's ready to camp, the combat wagon soldiers build the outer camp, the infantry stand next to the combat wagons, and the cavalry comes inside the outer camp and build the inner camp. After making camps, the soldiers sit down and rest after the reconnaissance and ambush assault soldiers are sent out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of the camp.

Specific details of the combat of soldiers in each branch will be introduced in the next session.

Now, when the soldiers are resting, the enemy ambush takes place at the front of the square camp. First, the reconnaissance, who went out to the front, waves the yellow flag to signal the ambush. With this alert, the commanders at the front deliver orders, and the soldiers get ready for the battle. When the enemy reaches 100 steps in front of bangyeong, they fire muskets, hand cannons, fire arrows, and cannons in a series according to the signal.

When the enemy reaches the camp where the combat wagons located despite the firing of various firearms, they engage in close combat as described earlier. After close combat, the training continues in the same way as the front procedure, assuming that the enemy appears one after another in the east, west, and north directions of the square camp as well.



After completing the training in each direction, they are given a situation that the enemy forces are trying to attack the four sides simultaneously, and the reconnaissances from each side warn them. Then jung-gun gives orders, and as I mentioned earlier, the soldiers fire muskets, and so on, and when the enemies get closer, they fight in close combat and defend the camp.

After defeating the enemy, they return to the camp and send out the so-called chogeupbyeong (supply soldiers) to get firewood and water. The cavalymen in the inner camp then go out of the camp, water the horses and return in line following the signal.

After setting up the square camp and completing the training for each direction, the official flag is set up, and the commanders of the platoons and squads are gathered to receive orders, and then let soldiers take off their armor and rest. Then, soldiers stand up, arrange the formation, and get ready to uncamp the bangyeong and retreat to the place where they originally departed.

At the start signal, combat wagons and infantry march densely, followed by jung-gun, flags and drums, and then the cavalymen, marching back to the training ground where they first started and line up.. After arriving at the training ground, the cavalymen get off their horses at the signal and line up on both sides.

When all the soldiers line up, jung-gun reports to the commander-in-chief that they have completed the training and let the soldiers rest. Then, if they have time, the soldiers' various martial arts will be tested. Mainly, martial arts are about the use of close combat weapons such as long spears, ranseurs, langxians, shields, hook spears, and staffs.

After the martial arts test, the final procedure to end the training is carried out. Sujagi, the flag symbolizing the commander-in-chief is lowered, which was set up on the training ground, after which the commander-in-chief rides out of the training ground, and the soldiers break up their formation and disband. This is the end of the large-scale combined training. The last part of Yeonbyeongjinam is Jeonchaje, which shows the structure of the combat wagon, the core weapon presented in the book.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it, we will look at the text of Yeonbyeongjinam next class, and for now, we will look at the general information of it. The combat wagon introduced by Yeonbyeongjinam was originally designed by Jeong Junbung, a military officer of King Seonjo's reign, adopted by Yu Hyeong, a bukbyeongsa (provincial military commander) of Hamgyeong-do, and altered to compensate the defects found in the field operation.

Jeong Junbung was a man who appealed to King Seonjo in May 1603, when he was a jubu (records keeper) of the Military Training Office, to prevent the enemy from charging by creating a 'Yun-geom Shield.' Nothing else is known about him except he was the third son of Jeong Chu, a military officer.

Yun-geom Shield that Jeong Junbung mentioned means a wheeled cart with shields and swords attached. Yu Hyeong made great contributions in major naval battles as an aide to Yi Sun-sin, Naval Commander of the Three Province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After the war, he went through Naval Commander of Right Gyeongsang Province, and that of the Three Provinces, and in 1607, he served as the magistrate of Hoeryeong as well as a bukbyeongsa, improving the combat wagon designed by Jeong Junbung. Han Gyo adopted the combat wagon system improved by Yu Hyeong and included it in Yeonbyeongjinam. The combat wagons selected in Yeonbyeongjinam are equipped with shields on the left and right sides and spears to prevent enemy attacks. And when the soldiers make formations, it can be utilized as a shield with the doors opened sideways.

However, unlike the combat wagons presented in Qi Jiguang's Lianbing Shiji, which was used a lot when compiling Yeonbyeongjinam, there seems to be no way to use a combat wagon to make a bold charge or shoot cannons while moving the combat wagon presented in this book. This means that the book has somewhat passive and defensive tactical system compared to Lianbing Shiji.



The political situation in the north in 1603, when Jeong Junbung first developed the combat wagon, was quite harsh. Not only did the Jianzhou Jurchens of Nurchaci expand to the lower reaches of the Tumen River, but the Jurchens around the Tumen River area also expanded, attacking three Beonho villages in Jongseong in August, and inducing their surrender.

Beonho is Jurchens subjugated to Joseon, who lived across the Tumen River, where 6 jin (military encampment) were located. They were the fences around the border of Joseon by warning other hostile Jurchens' invasion or defeating them. Their subjugation to other Jurchens means that Joseon's northern defense system weakened.

The Jurchens then attacked Donggwan, the Joseon military camp of Jongseong-gun, Hamgyeong-do, and continued to be aggressive. In this situation, another person was also developing a combat wagon to stop the Jurchen cavalry like Jeong Junbung

As we saw earlier, Han Hyosun, the Chief Border Inspector in Hamgyeong-do, argued that it was difficult to defend against Jurchens' charge without combat wagons, and proposed to make combat wagons, gun carriages, and ballista carriages, utilizing small and light carts of double or single wheels used by civilians at that time, instead of heavy carts used on the periphery.

He also suggested a tactic of operating combat wagons with cavalry and infantry to make the square formation, and shooting various firearms such as crouching tiger cannons, triple barrel, single barrel, and bird-beak hand cannons, and fire lance launchers, along with crossbows or catapults such as poisonous arrow shooters and bed crossbows.

The bird-beak hand cannon is a matchlock gun that is a kind of musket, used by the Ming army. The triple barrel hand cannon is a portable rifle with a short handle and three barrels attached to it, and it was often used by cavalry because it could be fired one after another. However, due to its short barrel and weak penetration, it was widely used for signali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As the crisis in the north escalated, Hullyeongdogam, the Military Training Command, which was established to introduce and distribute the Zhejiang Tactics to respond to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was gradually strengthened and became important as a military camp to defend Hanseong. In order to cope with the crisis in the north, Joseon actively considered introducing combat wagon-oriented military organization and tactics based on the Lianbing Shiji in addition to the Zhejiang Tactics, with Hullyeondogam at its center.

In December 1604 the 37th year of King Seonjo's reign, it was suggested and approved by King Seonjo that the southern four provinces of Gyeonggi, Chungcheong, Jeolla, and Gyeongsang, teach the Zhejiang Tactics in the Jixiao Xinshu, and the northern provinces of Gangwon, Hwanghae, Pyeongan, and Hamgyeong teach the tactics of Lianbing Shiji, that is, tactics using combat wagons.

In addition, Hullyeondogam had Han Gyo compile the rules for training combat wagons, cavalry, and infantry. And he prepared unified training method and tactics suitable for the situation of Joseon, based on Lianbing Shiji. These efforts were later embodied in the publication of Yeonbyeongjinam by Han Gyo. There is one military book to look at regarding Yeonbyeongjinam. I wonder if you've heard the name of this book, but it's Muyejobebyeonsokjip (Supplemented Annotation of Muyejebo).

Last time, I briefly talked about the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the first martial arts book in Korean history, Muyejebo (Martial Arts Illustrations), which summarizes the six martial arts required for the Zhejiang Tactics.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Muyejebo, in addition to these six martial arts, various martial arts using melee weapons for close combat were introduced in Joseon.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summarize these martial arts for close combat. In particular, new skills were required to prevent cavalry from charging, as well as skills for cavalry,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Lianbing Shiji. This is well represented in Yeonbyeongjinam.



As we saw earlier, the assault soldier squads of Yeonbyeongjinam were composed of shielders, langxianmen, spear-swordmen, and ranseurmen as their main duties were to prevent enemy cavalry from charging around the combat wagon. The shielders, langxianmen, and ranseurmen were already organized in the assault soldier squads of the Zhejiang Tactics, but spear-swordmen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this book.

A spear-swordman is a soldier with hyeopdogon, a kind of spear with 90~120 centimeters of blade inserted into a 2-meter shaft, which was a weapon mainly used by infantry against cavalry.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organize spear-swordmen's martial arts training.

In addition, Yeonbyeongjinam organizes cavalymen to make organic movements with the combat wagon units, who are equipped with various types of melee weapons such as flails, long swords, double swords, hook spears, and guandaos. The flail is a form of long and short clubs connected with chains, similar to the flails used for harvesting, which is a convenient weapon for hitting enemies.

Cavalrymen in the late Joseon Dynasty used this a lot when they charged and fought in close combats. The double sword is blades in both hands. A hook spear is a kind of spear with spines on the left and right sides of the blade, and used by infantry to pull down cavalry on horseback. A guandao is a weapon with a single blade on a long handle, which is widely known as the Green Dragon Crescent Blade of Guan Yu, and is bent like a half-moon, so it was also called eonwoldo, meaning 'half-moon blade.'

It is worth noting that flails, double swords, guandaos, and hook spears are melee weapons that are not included in Muyejebo. The existence of these melee weapons was known to some extent, but they were not used in Joseon until the Japanese Invasion. In addition to the martial arts of Muyejebo, a book summarizing these newly introduced martial arts was required to train the soldiers. It was necessary to publish a supplementary volume of Muyejebo, and the result was the Supplemented Annotation of Muyejebo. Until the mid-1990s, only the book's title was known, and its actual existence was unknown.



The book was introduced to academia in the late 1990s, when it was found in the library of Keimyung University in Daegu, and a photoprint was published. This book contains information on martial arts such as Daegwon (martial art with bare hands), and skills for the guandao, hook spear, Japanese sword, spear-sword, and the Green Dragon Crescent Blade, which were omitted from Muyejebo, as well as information on Japan. With the publication of Supplemented Annotation of Muyejebo, the tactics of Yeonbyeongjinam could be realized in detail.

The link between the compilations of the two books is apparent because the preface of Supplemented Annotation of Muyejebo was written by Choe Ginam, a fellow scholar of Han Gyo. However, after the Northerners' seizure of power in the middle of King Gwanghaegun's reign, the active battle in the field became relatively less significant due to the adoption of defense strategies, and the tactics of Yeonbyeongjinam were not adopted.

Naturally, the need for various martial arts using melee weapons in Supplemented Annotation of Muyejebo also decreased. Muyejebo was published several times because it was widely used in military exercises such as assault soldiers of Hullyeondogam in the late Joseon Dynasty, but Supplemented Annotation of Muyejebo has only recently come to light because of this situation.

As we've seen so far, Yeonbyeongjinam was not adopted as the main tactical system of the Joseon army after the compilation during King Gwanghaegun's reign due to Joseon's passive military strategy that emphasized defense in the fortress. Even after being unilaterally defeated by Qing's military forces in the second Manchu Invasion in 1634, Joseon maintained its passive defense strategy due to the military gap with the Qing Dynasty. Therefore, it was difficult to adopt the tactics of Yeonbyeongjinam, which encourages to make formations around combat wagons and fight in the field using various artillery and melee weapons.





But the significance of this book in military history has not faded. Yeonbyeongjinam is the first military book to comprehensively organize the combat wagon-centered tactics of Lianbing Shiji, which was introduced from the Ming Dynasty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make it suitable for the situation of Joseon. It can be evaluated as playing the role of basic data for relevant tactical development since the 17th century.

In addition, beyond the infantry centered tactics of Joseon, which resulted from the introduction of Jixiao Xinshu and the Zhejiang Tactic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it introduced tactics to simultaneously utilize combat wagons, cavalry, and infantry to cope with the emerging threat of northern cavalry. Until the publication of a new comprehensive military book, Byeonghaktong (Mastery of Military Study), in the late 18th century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it helped to develop the tactics for cavalry and combat wagons a lot.

Therefore, this book played a pioneering role in the tactics integrating cavalry, infantry, combat wagons and artillery in the late Joseon Dynasty. Along with the tactical and military historical aspects, Yeonbyeongjinam also has significance as it shows Joseon's search for tactics, while being threatened by the northern Jurchens in the 17th century.

Until now, most of the tactics of the late Joseon Dynasty have been reviewed mainly through Byeonghakjinam (Guide to Military Science) or Byeonghaktong used in training in the military camp, and it is true that the rest of the military books have not been explored sufficiently. It is expected that the review of Yeonbyeongjinam will help to study specific and microscopic military history in that it shows the reality of Joseon's military response to the threat of the North in the 17th century.

Although many people were hesitant to adopt combat wagons due to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mountainous Joseon, attempts to integrate archers, assault soldiers, and cavalymen with musketeers at the center continued. This can be confirmed by the expansion of the number of cavalymen from 200 to 500 in Hullyeondogam in 1634, the 12th year of King Injo's reign, just before the Qing invasion. So you can imagine how important Yeonbyeongjinam was in the military history of Joseon.





In addition, this book is considered to be significant as an important Korean language study material of the early 17th century because of its vernacular annotation. In Korean language study, the annotation of this book is also of great help in the study of classical Hangeul in that it contains Korean words that show the characteristics of dialects in Hamheung, Hamgyeong-do during this period. There is still controversy in academia over the fact that it partially reflects the notation of the Hamgyeong-do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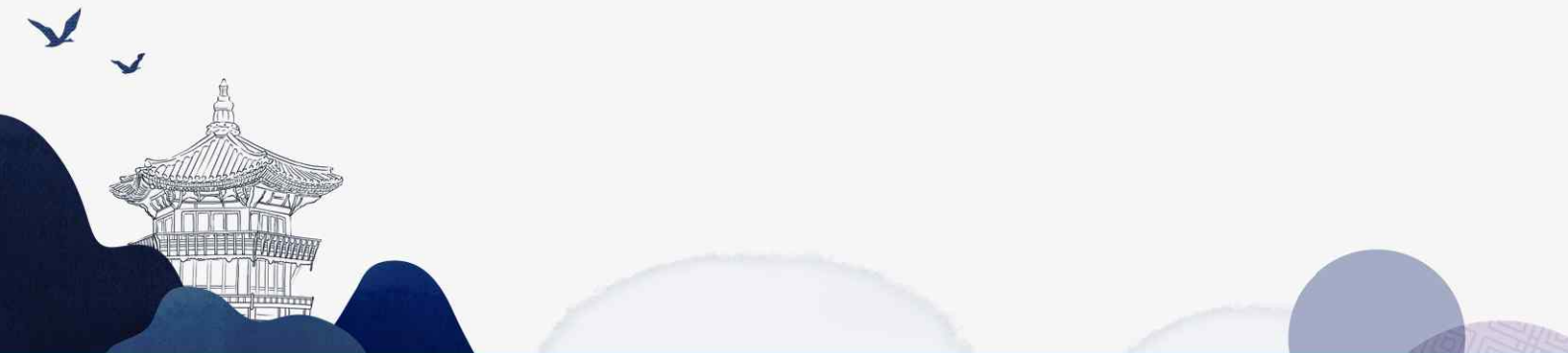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So far, we have summarized the background of the publication of Yeonbyeongjinam, the life of the author, Han Gyo, the overall contents of this book, and its value as academic material. In the next lecture, I will introduce the main contents of Yeonbyeongjinam and examine the types and operation methods of military signal flags of the late Joseon Dynasty presented in the book.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第5周

## 《练兵指南》是一本怎样的书

## 5-1

## 《练兵指南》是一本怎样的书

各位同学，大家好。我是担任《韩国古典新读》之《练兵指南》课程主讲的卢永九。这节课是我们第五节课，以“《练兵指南》是一本怎样的书”为主题。

虽然《练兵指南》对于普通人来说并不是一部广为人知的作品，但在国语学中有对于这本书的谚解，它作为记载了17世纪初韩语标记法的资料，从很早以前就备受瞩目。但是，这并不只是一本编撰于17世纪之初的简单的兵书作品。

在这节课中，我们将从图书学的角度来介绍朝鲜中期兵书《练兵指南》，以及学习其出版背景，体裁和内容概要，还有这本书的作者韩峤的相关内容。

最后，我们将会简要地说一下这本书在图书学方面的价值，通过这种方式，从兵学的角度了解17世纪朝鲜的外交状况，以及朝鲜的应对方式。并且，在下一次的课程中我们将学习这本书的内容概要，以及分析一些具体的内容，来看一下朝鲜兵学的一部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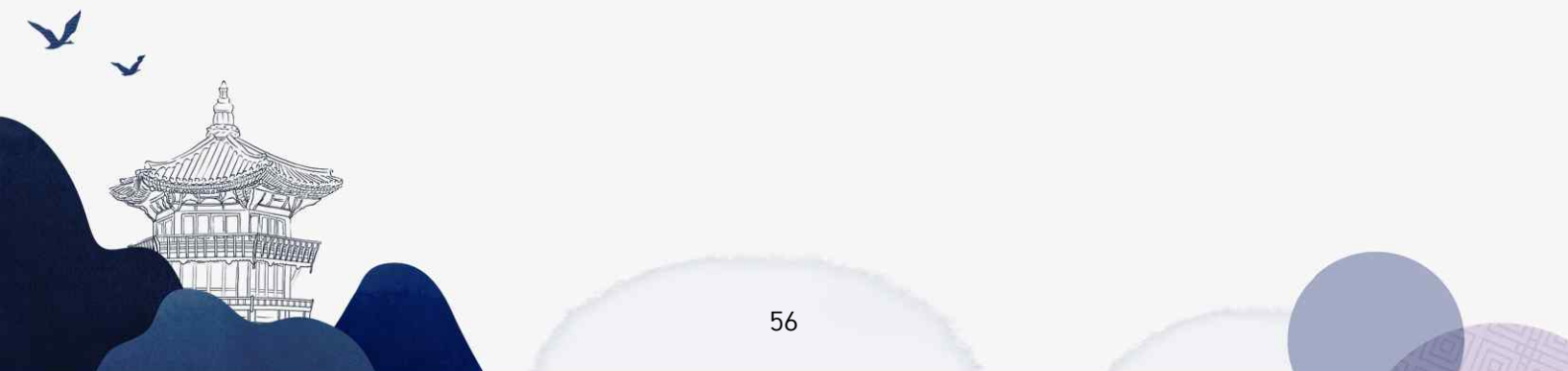
《练兵指南》这本书，应该除了研究朝鲜中期历史的历史学者之外，大部分人都是第一次听说。《练兵指南》是身为理学学者和兵学学者的韩峤于1612年光海君4年撰写的作品，由1册36章构成，是一本内容并不大的，以军事训练为用途的兵书。

在学术界中，《练兵指南》这本书最初并不是用于历史学中军事史研究相关的资料。令人意外的是，首先是在国语学领域，最初开始了对这部作品价值的评价。因为这本书的正文是用汉语撰写的，并进行了谚解，所以在17世纪初，这本书被用为国语研究资料。

这本书在17世纪初期，开始被作为军事史研究资料。我于2000年初在学术杂志《文献与解释》14号刊中，曾发表过介绍这本书的体裁和具体内容的论文，这本书也开始正式进入到大家的视野之中。在那之后，在首尔大学奎章阁韩国学研究院企划的“重新解读我们的经典作品系列”中，我编写的《练兵指南》的译注本就是在这个系列的其中一部作品，译注本使得这本书的内容看起来更简单易懂。



下节课，我们将学习与韩峤的生平和著作相关的内容。





## 5-2 韩峤的生平和著作

这节课，我们将学习与《练兵指南》作者韩峤这个人物的生平和著作相关的内容。

韩峤是朝鲜中期的兵学家，是一个非常特别的，非同一般的人物。尽管他师从栗谷李珥和牛溪成浑学习性理学，是一位理学家，但在他通过壬辰倭乱这个契机进入训练都监后，除了《练兵指南》之外，还编撰了很多类型的新兵书，为朝鲜后期兵学的发展打下了基础。他作为一位对军事学发展有贡献的人物，受到了不少的关注。韩峤的字是士昂，号是东潭，籍贯是清州。

韩峤是朝鲜初期世祖成宗时期的名人韩明浚的第5代子孙，出生于1556年明宗11年11月30日。他的父亲是庶子出身，而这种血缘关系，限制了日后韩峤的人生发展。尽管如此，相较于同时期的其他理学家，他还是接触了较多的学术领域。

韩峤从小就展现出了良好的天赋，很早开始就崭露头角，长大后，师从栗谷李珥和牛溪成浑，学习了性理学。韩峤在求学的初期，师从李珥，但身为李珥好友的成浑，反对其只认可气发的观点。成浑支持李滉的理发的观点，主张理气一发说这个观点。

并且，从1572年开始，经历了6年的争论，作者最终支持了成浑的观点，和赵宪，黄慎，李贵，郑晔一起归于成浑的门下。韩峤与以前成浑门下的弟子吴允谦，崔起南，安邦俊等人，一起成为了成浑学派的一员。

韩峤在壬辰倭乱后出版兵书，可以证实到他与主导仁祖反正的李贵和崔起南也有过交往，这些都基于这样的事实。在成浑的门下学习时，其对性理学的理解更为深入了，而且对于礼学的理解水平也有所提升。

虽然并没有流传至今，但他写过的《家礼补注》就能说明这些。除此之外，他还留下了《洪范衍义》，《四七图说辨义》，《小学续编》，《深衣考》等性理学相关的著作，但遗憾的是，这些作品都没有流传至今。除了性理学之外，他还涉猎了多个领域的书籍，精通天文，地理，卜筮，兵学等多个领域的学说。

1582年4月，壬辰倭乱发生后，韩峤聚集了乡兵，即义兵，来对抗日本军，立下了很多战功，因为这些战功，他被任命为司宰监的参奉。第二年，日本军退出汉城。当时柳成龙作为领议政，负责收拾战乱的残局，他对于精通兵书的韩峤的能力评价十分之高，将他任命为新成立的军营训练都监的郎厅。





同年1月初，在平壤城战斗中，明军使用了新的战术浙江兵法，获得了大捷。明军在这场战斗中，使用了各种火炮和火箭等远战武器，远距离镇压了日本军的汽船。接着在战斗过程中使用了新式的近战武器，像藤牌，铍钐，狼筅，长枪等，有效地应对了日本军擅长的近距离白刃战。

明军用浙江兵法这一战术击退了日本军，目睹了这一事实的朝鲜军想要学习这一战术。而这一战术的相关内容收录于大明帝国将领戚继光的《纪效新书》这部作品中，韩峤知道后也努力地想要入手这本书。在《纪效新书》这本兵书里记录了，在16世纪中旬，戚继光为了抗击侵略大明帝国南方地区的浙江省和福建省地区的倭寇提出的相关战术。

戚继光考虑到这个地区的道路比较狭窄，湿气比较重，大量装备了虎蹲炮等轻型火炮，以及鸟枪等单人武器，对倭寇实施了火力镇压。通过装备各种火炮，火力更加强大，然后把“队”作为基本战斗单位，由10名士兵组成1队，协同作战，使用这种战术来攻击倭寇，最终成功地战胜了倭寇。

壬辰倭乱期间，朝鲜通过向明军的军阵和使臣直接购买等多种多样的方式，学习了多个版本的《纪效新书》，因为朝鲜想要根据《纪效新书》的内容，来编制军队和组织训练。作为其中的一环，柳成龙让韩峤负责了《纪效新书》这本书的注释部分，通过他的努力使浙江兵法更易于理解。1953年冬天，设立了训练都监作为新的军营，并在营中普及这一兵法。

在训练都监中，鸟枪兵被称为炮手，弓箭手被称为射手，近战士兵被称为杀手，这些兵种组成了训练都监。射手是朝鲜传统的兵种，而炮手只接受过连续发射鸟枪的训练，所以难以掌握相关技能。但是，杀手不仅不知道《纪效新书》中初次介绍的藤牌，狼筅，长枪，铍钐，如何运用到军事上，而且连这些武器的使用方法也不知道。所以，为了完整地按照浙江兵法来执行，有必要尽快让杀手熟练掌握相关技艺。

为了解决这个问题，朝鲜宣祖发布命令训练近战士兵，也就是所谓的杀手，以《纪效新书》的内容为基础。针对难以理解的部分，可以向大明帝国军阵的将士进行询问，并整理相关内容。以这些内容为基础，为了普及杀手的技艺，开始着手编撰实战武艺书。

在训练都监的设立和军事训练走上正轨后不久，韩峤就经历了父母去世的伤痛。但是，当时急于训练士兵，所以需要各种类型的兵书，在这种情况下，韩峤无法进行为期3年的服丧。对于韩峤在服丧休职期间，仍然在履行职务这一行为，宣祖将其更新进入了制度之中，并命名为起复，在此期间韩峤还是编撰了包括武艺书在内的相关兵书作品。





他在这个过程中编撰的《纪效新书节要》，《武艺诸谱》，《操练图式》等作品，都是他的兵书研究的定本。《纪效新书节要》是基于《纪效新书》的内容，整理了与军事学原理相关的内容而编撰的作品。而《操练图式》则是整理了《纪效新书》中训练步骤相关的内容，这部作品也为朝鲜后期最重要的军事培训书《兵学指南》的撰写打下了基础。

在《武艺诸谱》中，整理了浙江兵法所必须的6门武艺，分别是大棒（棍棒），藤牌，狼筅，长枪，镋钯和长刀，这也是韩国史上第一部与武艺相关的兵书。相较于《纪效新书》，对于武艺的连贯动作进行了更为详细的叙述，由此可见，他对军事有着深度的理解。《武艺诸谱》是一部值得关注的作品，因为它是后来正祖时期编撰的《武艺图谱通志》这部作品的原型。

完成《纪效新书节要》等主要兵书作品后，韩峤马上回到了京畿道广州的退村，去为父母完成尚未结束的服丧。结束服丧后，他被任命为了韩城部的北部主簿。在1600年，宣祖33年的冬天，被任命为军资监的判官，但是在台谏中，对他的任用有异议，所以最终未能前往就任。

后来，被任命为训练都监的教训官，都体府操练官等官职，他在北部边疆地区，位于西北的小城镇守了约10年的时间。在17世纪初期，韩峤前往了位于西北的小城市，并开始在该地活动，因为当时北方的局势非常不稳定。

因为在壬辰倭乱前后，朝鲜受到了来自满洲南部地区新兴势力的努尔哈赤的建州女真的挑战。在壬辰倭乱之前，建州女真的势力范围已经不断扩张，甚至扩张到了鸭绿江流域。1593年，在击败了海西女真联合体扈伦四部后，他们的势力范围已经扩张到了白头山和图们江地区。建州女真的威胁不断扩大，同时之前被其战胜的势力，有部分开始在地区图们江地区活动。为了向朝鲜进行复仇，女真族人开始掠夺藩胡，给朝鲜带来了巨大的负担。

为了有效镇压女真族这个崛起的势力，韩峤认为需要研究新的战术来应对女真骑兵的进攻。他注意到了戚继光的另一本兵书《练兵实纪》中提到利用战车的战术。

在《练兵实纪》中介绍了，戚继光在击退倭寇之后，为了应对北方的蒙古势力，而提出的使用战车的战术。



了以下的战术，为了应对以骑兵作为敌人，在车旁边设置盾牌，且在方阵的外围设下了装有2门新型后装火炮佛狼机的战车共128辆。让骑兵和步兵在阵内等待，通过火炮射击，有效地削弱了敌方的骑兵攻击，让骑兵和步兵向敌方发起突击。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韩峤积极地主张，为了应对北方的女真骑兵，朝鲜军要运用浙江兵法和其他新的战术。

实际上，他制造了战车，并在平壤岛进行了测试，研究除了适用于朝鲜的使用战车的战术，相关的成果被记录于1612年光海君4年编撰的《练兵指南》这本书中。但是，当时有很多反对意见指出，朝鲜的山地较多，不适合使用战车，所以这个战术最终没有被采纳。这也对后来朝鲜关于战车使用的相关研究起到了先驱作用。

在这本书编撰后不久，因为1613年，光海君5年发生的癸丑狱事，曾为庶人的韩峤，被指控在过往的考试中，登记父亲名字时使用了假名。所以，其蒙冤被流放到了全罗道顺天，流放大概持续了2年左右的时间。

癸丑狱事是指，大北派李尔瞻策划了虚假的谋反事件，杀掉了宣祖的嫡子永昌大君和仁穆大妃的父亲金悌男，从而根除了永昌大君一派在朝廷中的势力。在癸丑狱事期间，发生韩峤蒙受冤屈这件事，应该是早有预谋，把矛头对准他，是因为他是一个十分擅长兵法且庶民出身的人物，而且对北方势力来说，具有一定的威胁性。

在2年后，1615年，光海君7年，韩峤获得了赦免，被任命为了都体府的调练官和都元帅的参谋官。后来，结束了黄海道谷山府使的履职之中，就放弃了仕途，选择隐居于汉城近处的峨嵋山脚下。在此期间，和李贵一起，使得李尔瞻等人策划的仁穆大妃的废母事件失败了。

1623年3月，仁祖反正期间，韩峤和其弟子李贵和崔鸣吉等人主导了该事件，他被任命为了掌乐院金正，接着同年4月，他又被再次任命为了谷山郡守。同年10月，因为仁祖反正事件中立下的功劳，被册封为靖社功臣三等西原君，并且官阶晋升至通政大夫。

第二年，1624年正月，发生了李适之乱，韩峤作为御营使李贵的副将出战，负责临津江的防御。他们想要阻止叛乱军的南下，但最终宣告失败，最后他选择了白衣从军。但是，接下来依靠叛乱军，抓住了曾经拥护国君的兴安君璉，其立下的功劳得以认证，最终得以复职。



1625年仁祖3年11月，他被任命为高城郡守，第二年被免职后，在广渡口附近建了一座房子，过上了闭门不出的生活，据说是因为他生病了，所以不再从官了。在他病情加重的时候，虽然他上疏禀报了要在西北地区提早做好准备应对后金入侵的想法，但并没有被采纳。在这次的上疏禀报后不久，于1627年仁祖5年正月12日逝世，享年72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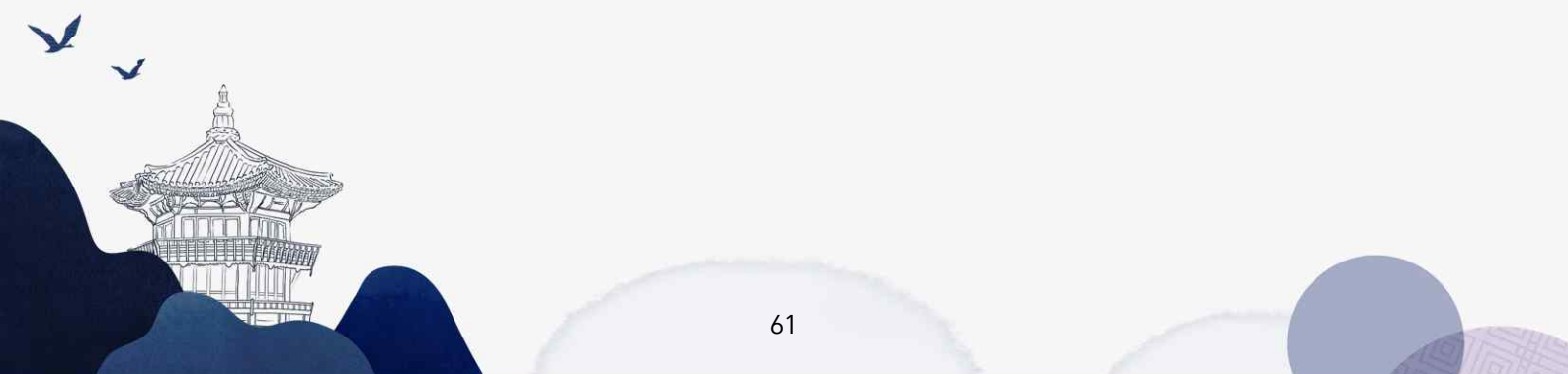
在他去世后，他被迫授为资宪大夫，户曹判书兼知义禁府事和清城君。在他去世后不久，没过几个月就发生了丁卯胡乱，这是一次来自后金的进攻，所有人都佩服他的先见之明。

因为丁卯胡乱的爆发，社会陷入了一片混乱，连他的葬礼也没有好好地举办。之后，在与后金签订和约之后，仁祖从其避难地江华岛，也就是江都回来后，于同年5月8日，从朝廷派遣了官吏，在川宁县为韩峤举办了厚葬。

在韩峤的著作中，除了《纪效新书节要》等兵书，在他去世后不久，大部分的作品都未能面世，只在历史上留下了作品的名称。因为他自己是庶子出身，而且身为性理学者的他，并不排斥涉猎多个学说领域，他认为和经世相关的各种类型的学说，是这个社会目前所急需的，可见他的学术态度十分包容。但是这也让他撰写的和性理学有关的作品，受到了其他学者的排斥。

他的文集《东潭集》也是在其去世后才被出版，在朝鲜末期编撰的《增补文献备考》第249卷“艺文考”中记录了他的书名。这个内容一直被流传到了20世纪初期。但是，在现在主流大学的图书馆中，还未能确认是否有收藏《东潭集》这部作品，所以对于我们未能完全掌握他的生平和思想这点，也觉得有点遗憾。

这节课，我们学习了《练兵指南》作者韩峤这个人物的生平和著作相关的内容。下节课，我们将学习《练兵指南》的出版背景相关的内容。





### 5-3 《练兵指南》的出版背景

上节课，我们学习了《练兵指南》作者韩峤这个人物的生平和著作相关的内容。这节课，我们将学习《练兵指南》的出版背景相关的内容。

上节课，我们曾简单地提到过壬辰倭乱之后，北方女真的特别的动向以及朝鲜对此采取的应对措施，这本书就是在这背景下出版的。1598年末，露梁海战最后的结局是日本军从朝鲜撤退，壬辰倭乱结束后，鸭绿江中上游地区的军事活动开展得更频繁了，从白头山一带和图们江上游地区，扩散到了图们江下游地区。

在壬辰倭乱之前，建州女真的势力已经形成了一定的规模。在壬辰倭乱期间，大明帝国大举派兵进攻朝鲜，其对于满洲一带的影响力有所减弱，开始正式在位于长白山脉山脊的白头山和图们江地区展开活动。建州女真越过了鸭绿江中上游，在图们江一带展开活动，因此，当时朝鲜与建州女真接壤的边界线很长。

接着，建州女真对于位于满洲内陆的海西女真的很多部落正式地发起了进攻，开始在图们江下游展开活动。在17世纪初期，光海君时期初期，大部分的女真部落都归努尔哈赤统治。由此可见，建州女真对朝鲜造成了较大的威胁，所以急需一种战术，来有效地防御能力出众的女真骑兵。

光海君时期初期，为了应对女真的侵略，在朝鲜开始出现各种各样的防御战术，大致可以整理为以下几个方案。其中，最具有代表性的一个方案是，尽量避免在平原地带与骑兵占优势的女真族的直接交战，而是在要冲之地修筑城郭，在那个地方部署各种类型的火炮，采取对抗型的防御战术。

1614年，光海君7年，之前的鸟枪制造官厅“鸟枪厅”规模进一步扩大，并将名称改为了“火器都监”，用来制造各种火器。并且在北方修建和维护边防设施，当时采取了这样的防御战略。

除了像在城郭中部署火炮这种较为消极的战术，还有一个方案是考虑了野外战斗的情况。在这一情况下，为了阻止骑兵的袭击，制造了大量的用于战斗的大型战车，新的战术是以此为基础展开的。17世纪初期，各种使用战车的战术不断涌现，而韩峤正是提出了具体战术的代表人物之一。





出现了在这两种截然不同的防御战略，因为当时在各党派之间也存在着巨大的国防政策差异。北人派重视内治，相较于国际形势，其主张对外采取柔和的政策，所以他们重视强调防守的防御策略，例如在城郭中部署火炮这一方式。由此可见，他们致力于建造城郭和制造火炮及鸟枪。

西人派的主张则与此不同，认为对待女真族需要采取强硬的态度。他们积极地考虑和大明帝国一起携手对抗女真，所以有提到在满州一带展开战斗的情况。这种情况下，需要考虑适合平原战斗的战术，军事制度和武器体系。

所以有必要研究适用于平原战斗的，以战车和骑兵为中心的战术。韩峤的著作《练兵指南》的编撰和出版，反映了西人派对于女真防御战略的观点。

但是，使用战车的这种战术，并不只是西人提出的观点。担任光海君队左议政的韩孝纯也于1603年，宣祖36年的冬天，提出了女真族习惯在平原发起猛攻，如果没有战车的话，就难以防御他们的进攻。同时，他们还提出使用两个轮子(双轮)和一个轮子(独轮)的轻便小车，来制造战车，炮车，弩车，使用虎蹲炮等各种火器进行涉及，来阻挡骑兵的进攻。

直至1613年，光海君5年为止，两种防御战略旗鼓相当。但是大北派为了除掉永昌大君和反对派西人的势力，策划了癸丑狱事，这也是西人势力急剧衰败，发生巨大变化的转折点。

上节课我们提到，癸丑狱事和西人势力的衰败，因此，韩峤也失势，遭到流放。使用战车的战术开始被忽视，所以《练兵指南》的存在感也急剧下降。与此同时，朝鲜致力于制造和改良包括鸟枪和胜字铳筒在内的单人武器和佛狼机等各种各样的火炮，而且沿着进攻的线路，呕心沥血地建造了邑城和山城等城郭。这种防守型的防御战略，也成为了朝鲜军队在丙子胡乱中惨败的原因。但是，在与大清帝国军事实力差异较大的朝鲜后期，朝鲜也很难使用进攻型的军事战略。当然，当时朝鲜具备优秀的鸟枪和火炮的使用能力，所以很容易就会选择了防守型的战略。

因此，在朝鲜后期继续保持了使用城郭和火器的防守型军事策略，这也让《练兵指南》这本书难以成为朝鲜的主流书籍。这也成为日后普通人对这本书所知甚少的原因。

这节课，我们简单地学习了一下《练兵指南》的出版背景。下节课，我们将学习《练兵指南》的体裁和内容，以及学术史的价值相关的内容。



#### 5-4 《练兵指南》的体裁和内容，以及学术史的价值

上节课，我们学习了《练兵指南》的出版背景。这节课，我们将学习《练兵指南》的体裁和内容，以及学术史的价值相关的内容。

《练兵指南》这本书并没有划分卷章，正文部分的内容使用了汉文进行记述，并且附记了谚解，采取了这种体裁形式。目录大致可以分为四个部分，分别是“车骑步队伍规式”，“车骑步合操小节目”，“车骑步合操大节目”和“兵车制”。

在“车骑步队伍规式”中，详细地记叙了以下内容，包括指挥一个车队的车正的作用，由12名的枪手，杀手，弓手和马兵组成一队。还有以战车为中心进行的队伍编制，和各兵种的士兵们的位置，以及战斗时具体的作用和行动的要领。一个旗，即3个队，或者每队编制为一辆“车”，这也展现了其构成和战斗方式。

例如，指挥战车部队的，被称为“车正”的人，全面地负责发号施令，指挥一辆战车的前进或后退，如果一个旗是由一辆战车组成的，那么旗的总指挥旗总就是车正。如果一个队是由一辆战车组成的，那么队的总指挥队总就是车正。队总在《纪效新书》等书籍中也被称为队长。

即，车正是战车及战车的士兵的指挥官，每辆战车由36名的士兵组成的，即如果有三个队组成了一个旗，那么旗的总指挥旗总就是车正。如果由一辆战车和12名士兵组成了一个队，那么队的总指挥队总就是车正。通过这本书的记叙，我们知道了一辆战车和—个旗或一个队的士兵组成了战斗的单位。

“旗”和“队”这两个概念，来自于《纪效新书》和《练兵实纪》等书中记录的戚继光提出的军事组织。一个队由1名队长，10名士兵，还有1名火兵担任辅助兵，总共12人构成的军事组织，一个旗由三个队组成。

由枪手，杀手，弓手，马兵等兵种组成的最小战斗单位是“队”，特别需要关注的是弓手队。在这本书撰写时主要参考的资料《练兵实纪》和《纪效新书》中，并没有出现弓手队的相关内容。

据这本书记载，弓手队是由使用朝鲜传统武器弓矢的弓手组成的队。在壬辰倭乱期间设立的训练都监，考虑使用三手兵体制，即射手，杀手和炮手。





在壬辰倭乱期间，束伍军是当时新编制的地方军，其也被纳入了三手兵体制。《练兵指南》的内容也符合当时的军事情况，所以当时只要制作了战车，就可以被有效地运用。我们下节课再详细地了解一下各兵种的战斗表现。

在“车骑步队伍规式”中，不仅介绍了战车和各队的编制，还展示了各队的战斗形态。在“车骑步合操小节目”中，记叙了合练的步骤，即战车，骑兵和步兵一起训练的步骤。

合练的顺序是，在进行军事训练前，战车等三个兵种的军事们拿着武器，腾身上马，为了接受命令而列队。在开始训练之前，担任训练的将领中军在回禀担任指挥官的主将训练即将开始。之后，塘报军率先向前，这是一个侦察敌人前进方向的敌后兵种，负责观察敌人的动向，并且在大部队的前后，设置躲在暗处攻击敌人的伏兵。

位于前线的敌后兵，在发出敌人出现的警报后，士兵开始准备战斗，在那之后，敌军如果继续靠近，那么就开始用鸟枪和火箭，以及大炮进行攻击。火箭并不只是单纯的带火的弩箭，而是可以通过推进器，通过自身的推进力起飞的小型火箭。

除了各种火器的射击，如果敌军接近战车的话，那么各兵种的士兵们会以战车为中心，对敌方发动攻击，从而击退敌人。而且还叙述了，在被击退的敌军回到原来的位置的时候，再重新对敌军发起进攻，敌军在应对的时候再次败退的场景。

在那之后，让队伍的队形恢复成最初的阵型，退回原来的地方，在敌军溃败后，躲藏在山林或大麦田，溪谷等地的伏兵对敌人进行追击，与士兵一起和敌人展开抗争。并且，对于在战斗中的有功之人给予奖赏，对于在战斗中的有过错之人给予惩罚，以此来结束操练。

在“车骑步合操小节目”中，记录使用战车，骑兵和步兵了进行小规模训练的内容，在下一篇的“车骑步合操大节目”中，记录了这些兵种的大规模训练，也就是所谓的“大操”的顺序。

训练顺序前，首先在操练的前一天要挂上通知训练的操牌。训练当天，军事要去训练场列队，其中战车和炮车分列在训练场的左右两边，步兵列对于战车旁边。在马兵入场后，会在作为检阅台的将台左右两侧横向列队，等待队长的入场。



士兵们在训练场进行列队，队长进入训练场后，官阶低于中军的指挥官都要下跪，行此礼来迎接队长。在队长在将台上座之后，为了传达命令，官阶低于中军的指挥官都聚集到队长面前，队长下达命令。在下达命令时，指挥官们退下，然后向其麾下担任车正的指挥官传达命令，关于在战斗中的注意事项等内容。

接着，为了开始训练，原本坐着的士兵起身站立，并且手拿武器，而马兵骑着马，为战斗训练做好准备。正式开始训练之前，首先大家要拿着旗帜，响起军乐，列队进场。用旗帜作为信号，战车，骑兵，步兵的指挥官们的行动需要保持和旗帜信号一致，他们也会将命令传达给下属的部队。

行军由马兵，中军，掌管旗帜和军乐的旗鼓组成，按照以下顺序行军，先是拥有车兵和战车的奇兵队，然后是步兵队等等。当行军的队列到达训练场的中央时，假想的敌军伏兵将出现在后方。

敌军的伏兵出现后，在侦察马兵后方的哨探马兵，摇动旗帜，通报敌军的出现。为了阻挡敌军的进入，将战车和投石车推到两边，来进行排兵布阵，马兵进入到战车阵的中央，摆开阵势。在布好战车阵后，会在阵的前后布局伏兵，如果敌人来了的话，他们可以偷袭敌人。

如果敌军继续靠近的话，枪手和弓手将会跑到战车的前方，准备进行射击。如果敌军进入到我方布阵的100步，约120米以内，会响起天鹅声的喇叭信号，开始用鸟枪和胜字铳筒进行射击。

所谓天鹅声，就是响一次很长时间的喇叭，天鹅声喇叭主要用于以下几个场合，各军一起放声呐喊，或者枪手一起发射鸟枪，或者弓手一起射箭时。在鸟枪射击后，开始全面使用火箭和虎蹲炮，佛狼机等火器进行射击。

虎蹲炮属于一种轻型火炮的一种，安装好放置炮身的炮架，在它的下方两侧，有可以固定炮身的钉子。因为这种炮的外观看起来像是老虎用前腿站立，所以得名“虎蹲炮”。在敌军不惧火箭等武器射击，选择继续前进，并进入到50步以内的距离范围时，弓手们移动向前，开始射弓，弓的发射速度很快，像是构建了一层火力网。

如果各种火器和弓矢的射击也无法阻挡敌军的进攻，战车兵及包括牌手，刀棍手，钹手和铙手等士兵在内的近战士兵，会发动针对敌方骑兵的攻击。位于阵中间的马兵，分了左右两个阵营，跑向敌军的旁边，与敌军进行近距离交战。





快枪是指，通过在棍子前方设置有枪管较宽的火绳枪，在每一次射击之后，棍子都可以顺势攻击敌人的武器。步兵们每次和敌军进行近距离交战的时候，马兵都会跑出来，使用鞭棍，长刀，偃月刀和双刀等兵器，来攻击敌人。通过马兵的突击，将敌人击退到一边，让敌人进入有伏兵驻守的区域，伏兵从旁侧跑出，偷袭敌人。

在战斗中，将敌人击退之后，每个兵种都会后退数十步，然后进行队伍整顿。如果在收队后退的过程中，敌人再次攻击我军，为了应对来自敌人的攻击，我军需要实施以下应对战术。接着，大部队故意后退，把敌人引入有伏兵埋伏的敌方，在伏兵切断敌人的后路之后，原本故意后退的大部队也开始转向发起进攻，击退敌军。然后，做好准备防御敌军的下次进攻，回到出发时的阵营之中。

回到阵营后，布置方营，即四角形的阵营。具体的流程是，首先中军建议设置方营，在此之后将五方旗手等各类型旗手派往地势条件较好的地方，确认好建立内阵和外阵的条件。在内外阵的前后左右的边界，以及阵的出入门位置插上五方旗和角旗等旗帜，为布阵做准备。

完成布阵的准备后，车兵向外将方阵展开，步兵站在战车旁边，马兵进入外阵的内部，布局内阵。在建好方营之后，兵营的前，后，左，右都布局了侦察马兵“探马”和伏兵，方营中的士兵们都可以坐下休息。

对于具体的各兵种的士兵战斗时的表现，我们下节课再进行详细地介绍。

在士兵们休息的时候，方营前面也出现了敌军的伏兵。首先，位于前面的探马摇动黄旗，以通知大家敌军伏兵的出现。在听到这个警报之后，位于方营前面的将领将做好准备，即，在收到指挥官们的命令后，士兵们会做好战斗准备。如果敌军进入到方营前面的百步范围之内，士兵们会根据信号依次发射鸟枪和胜字铳筒，火箭，大炮等火器。

如果连各种火器的射击也无法阻止敌军，敌军还是来到战车阵前面的话，那就会开始展开近距离战斗。在近距离战斗之后，如果敌军在方营的东边，西边和北边依次出现，与敌军在前面出现时，使用相同的方法应对即可。

在完成了敌军在军营四个方面单独出现的训练之后，接着会发生敌军在四面同时出现的情况，而四个方面的探马们，也都发起警报。中军下达命令，然后如前面提到过的一样，士兵们开始进行鸟枪射击，如果敌军继续靠近的话，就进行近距离交战来防御。



在击退敌军之后，重新回到阵营之中，为了寻找柴火和水源，派出负责此任务的樵汲兵。接着，位于内阵的马兵们，来到营外喂马喝水，根据信号适时地收队返回。

在建好方营之后，完成训练的方阵会进入官旗的阶段，即，把长官，以及旗总和队总等指挥官们聚集起来，下达命令，士兵们可以脱下铠甲，进行休息。接着，为了将方营撤退到原来出发的地方，士兵们起身整顿队伍，进行撤退准备。

根据出发的信号，战车和步兵都紧锣密鼓地开始行军，接着是中军和旗鼓，最后是马兵，回到训练场这个开始的地方。到达训练场之后，马兵会根据信号，从马上下来，分列于两侧。

全部的士兵们都进行列队，中军向队长报告训练结束，士兵们开始休息。接着，如果还有时间的话，会开始测试士兵们的武艺。主要的武艺包括了长枪，铍，狼筈，藤牌，钩枪等近战武器使用的步骤等内容。

测试武艺是结束训练前的最后一个环节。在拔下训练场中插着的，象征着队长的帅字旗后，队长从训练场骑马退场，然后士兵们也可以解散了，这象征着大规模操练，也就是所谓的“大操”正式地结束了。

在《练兵指南》中最后的部分，记叙了“战车制”相关的内容，展示了这本书的核心武器战车的结构。对于具体的战车结构，我们下节课在介绍《练兵指南》正文部分的内容时会详细学习，这节课我们就简单地了解一下。

在《练兵指南》中介绍的战车，是原来宣祖时期的武官郑峻鹏发明的，咸镜道北兵使柳珩采纳了他的意见，并且在现场使用的过程中，发现了一些问题，并对战车的设计进行了完善。

1603年，宣祖36年5月，郑峻鹏在担任训练院主簿期间，向宣祖上疏，建议制造“轮劔防牌”，从而使敌人无法突击进攻。郑峻鹏是担任武官的郑锺的第三个儿子。

郑峻鹏提到的“轮劔防牌”，是指围着防牌的，装备了剑的，且可以靠轮子移动的车辆。柳珩是丁酉再乱时期三都水军统制使李舜臣的参谋，在海战中立下了大功，在战争结束之后，曾担任过庆尚右水师，三都水军统制使等职位。于1607年，被任命为会宁府使兼北兵使。对于郑峻鹏发明的战车，他进行了进一步的改良。韩峤采纳了柳珩的设计，并将柳珩改良后的战车图纸收录于《练兵指南》之中。





按照《练兵指南》中收录的战车结构来看，战车上围有阻挡敌军攻击的防牌，并且装备了枪。并且，在这一结构下，进行布阵的时候，可以将战车上的门向侧面展开，用作防牌。

但是，与在《练兵指南》这本书撰写时主要参考的资料，戚继光编写的《练兵实纪》中记录的战车有所不同。在这本书中没有提到使用战车发起突击，或者移动战车进行火炮射击等攻击方法。可以说相较于《练兵实纪》，在这本书记录的使用战车的战术中，更偏向被动和防御型的战术体系。

在郑峻鹏首次发明战车的1603年，当时北方的形势十分严峻。当时，不仅是努尔哈赤的建州女真势力扩张至图们江下游一带地区，而且图们江一带的女真势力也在不断壮大，所以8月攻击了三个位于钟城的藩胡部落，并降伏了藩胡人。

在图们江的对岸有藩胡六镇，居住着原本属于朝鲜的女真族，如果看到有其他女真的入侵，就会发出警报或击退他们，在朝鲜的国界线上发挥着像护城河一般的作用。如果他们屈服于其他女真的话，那么朝鲜的北方防御体系的实力就会被减弱。

女真族接着攻击了位于朝鲜咸镜道钟城郡的要塞潼关，女真族采取了进攻型的战术。在这种情况下，为了抵抗女真骑兵的攻击，有另一个人物和郑峻鹏一起进行战车的发明研究。前面我们提到过的，在那年冬天，咸镜道都巡察使韩孝纯认为如果没有战车的话，就难以抵抗来自女真族的突击。他认为应该把在边防使用的重型车辆，换为当时在民间使用的双轮和独轮这种轻便的小车，并且提出可以制作炮车和弩车。

还提出使用战车，与骑兵和步兵相结合的形式，进行排兵布阵，然后使用药弩，床子弩等机械弓箭。同时使用虎蹲炮，三眼枪，一眼枪，鸟嘴枪，神火枪等各种火器的战术。

鸟嘴枪是火绳枪，也是鸟枪中的一种，明军曾经使用过这种兵器。三眼枪的手柄较窄，有三个枪管，是可以随身携带的手枪，可以使用三个枪管依次进行开火射击，这种兵器在骑兵们中得以广泛地使用。但因为枪管较窄，穿透力较弱，所以朝鲜后期只把其作为信号枪使用。

在壬辰倭乱期间，为了应对日本军，和引入并普及浙江兵法，而设立的训练都监，随着北方的危机进入高潮阶段，其地位也不断地提升，在那之后其被视为守护汉城的军营。为了应对北方的危机，朝鲜以训练都监为中心，研究学习浙江兵法，并且积极地借鉴了《练兵实纪》中提出的以战车为中心的军事组织和战术。



1604年，宣祖37年12月，他向宣祖提议在训练都监向包括京畿，忠清，全罗和庆尚在內的朝鲜的四个道，教授《纪效新书》的战法，即浙江兵法。同时，向包括江原，黄海，平安，咸镜在內的北方地区教授《练兵实纪》的战法及使用战车的战术，这个提议获得了宣祖的同意。

训练都监也为韩峤编撰战车，骑兵和步兵的训练规目提供了条件。以《练兵实纪》为基础，根据朝鲜的实际情况，准备统一的训练和战术。这些努力铸就了日后韩峤的《练兵指南》这部作品的出版。

还有一部和《练兵指南》相关的，我们需要学习的兵书作品。不知道大家是否有听说过这本书的名字，这本书的名字是《武艺诸谱翻译续集》。

上节课，我们整理了浙江兵法所需的6门武艺，《武艺诸谱》是韩国历史上第一本武艺书，我简单地讲一下这本书的编撰和出版过程。在《武艺诸谱》出版之后，朝鲜在这六种武艺的基础上，还新增介绍了具备多种近战武艺的短兵武艺。

因此，我们有必要整理在朝鲜新增介绍的这门短兵武艺的相关内容。特别是，为了抵抗骑兵的突击，在发明新的武艺的同时，也通过《练兵实纪》引入了马兵的武艺。这种情况在《练兵指南》也很常见。

正如我们前面所提到的，《练兵指南》中的杀手队，主要位于战车的周围，主要任务是协同抵抗骑兵的突袭，由藤牌手，狼筅手，刀棍手和钹手组成。藤牌手，狼筅手和钹手是原来在浙江兵法的杀手队中已经存在的兵种，而刀棍手则是在这本书中第一次出现的兵种。

刀棍手是指，手持夹刀棍的士兵。夹刀棍，是指把3~4尺长的刀刃，插到7尺左右的手柄中，制作而成的兵器，一般是步兵用来对抗骑兵的武器。所以有必要整理刀棍手的武艺训练内容。

并且，在《练兵指南》中指出需要布局战车部队和持有武器的马兵，因此马兵需要装备鞭棍，长刀，双刀，钩枪和偃月刀等各种类型的短兵器。其中，鞭棍是一种又细又长的，将两个短棍用铁链绑在一起的，与秋收时使用的连枷相似的，便于击退敌人的武器。





在朝鲜后期，骑兵在突击和进行近距离交战的时候，会经常使用到鞭棍。双刀是指两只手都拿着刀钩枪是一种在枪尖的左右两边有刺的武器，是常用的枪器之一，步兵经常会用这种武器将马上的骑兵的击落。提到偃月刀，一般很多人想起关羽的青龙偃月刀。偃月刀是一种单刃长柄的武器，刀刃弯曲呈半月形，也蕴含有“半月刀”之意。

鞭棍，双刀，偃月刀和钩枪这些短兵器没有被收录于《武艺诸谱》这部作品之中，我们有必要关注这点。这种短兵器的存在，虽然应该也有人知道，但是在壬辰倭乱之前，朝鲜并没有使用这种武器。

除了《武艺诸谱》中介绍的武艺之外，还介绍了新的武艺，而这些新的武艺也需要训练士兵进行运用，所以有必要整理这些武艺的相关内容。因此，《武艺诸谱》有必要出版续集，所以后来出版了《武艺诸谱翻译续集》。直至20世纪90年代中旬之前，这本书只有书名得以流传，书的内容并没有流传开来。

20世纪90年代下旬，大邱的启明大学图书馆收藏了这本书，并出版了影印本，并在学术界流传开来。这本书是一卷一册的形式，收录的内容包括了在《武艺诸谱》中遗漏的大拳和偃月刀，钩枪，倭剑，夹刀棍和青龙偃月刀等武艺，以及和日本相关的信息。随着《武艺诸谱翻译续集》的出版，《练兵指南》中提出的战术也得以实现。

《武艺诸谱翻译续集》这本书的跋文是韩峤的同学崔起南撰写的这点，也体现了两本书之间紧密的联系。但是，在光海君时期中旬，北人派掌权之后，采取了以守城为主的防御战略，在野外采取积极的战斗策略的意义相对弱化，所以无法实现《练兵指南》中提出的战术。

并且，对于《武艺诸谱翻译续集》中提出的多种多样的武艺，作者还叙述了这一内容的必要性。虽然在朝鲜后期训练都监进行的杀手等士兵的训练活动中，《武艺诸谱》被广泛使用，而且被多次出版，但是《武艺诸谱翻译续集》的存在，是最近才广为人知的，可能也和这一点有关。

正如我们前面提到的那样，《练兵指南》在光海君时期完成编撰后，由于朝鲜重视城郭的防御。采取了消极的军事战略，所以这本书提到的战术无法被采纳为朝鲜军的主要战术体系。1634年末发生了丙子胡乱，即使在惨败给了军事实力强大的大清帝国之后，朝鲜政府在面对军事力量差异较大的大清帝国，也选择继续保持消极的防御战略。所以，当时并没有采用《练兵指南》中提出的以战车为中心进行布阵，使用各种火炮和短兵器在野外战斗的战术。



但这并不意味着这本书就不具备军事史的意义。在《练兵指南》中，研究了在壬辰倭乱之后，为了应对北方的骑兵，从大明帝国引入的《练兵实纪》中提到的以战车为中心的战术，以这是第一部为了研究出符合朝鲜实际情况的，综合整理各种资料的兵书。这也是17世纪以后研发相关战术的基础资料。

并且，在壬辰倭乱期间，朝鲜引入了包含浙江兵法这一内容的《纪效新书》。朝鲜之前偏重使用纯步兵的战略，而这本书介绍了可以应对北方骑兵威胁的，综合使用战车，骑兵和步兵的战术，一直到18世纪中下旬，正祖时期，新的综合型兵书《兵学通》出版之前，这本书都对骑兵和战车相关的战术研发起到了很大的作用。

所以，在评价这本书的军事史价值时可以看到，其在朝鲜后期，提出了综合使用步兵，车兵和炮兵等兵种的战术，具有先驱作用。从战术和军事史方面来看，《练兵指南》这部作品，在17世纪受到北方女真威胁困扰的朝鲜，积极地展开了对于新战术的探索，所以其具有十分重要的意义。

之前，对于朝鲜后期的战术研究，大部分是以在军营训练中使用的《兵学指南》或《兵学通》为基础展开的，对于其他的兵书的研究并不充分。通过对于《练兵指南》的研究，可以知道17世纪受到北方威胁困扰的朝鲜，展开了积极的应对战术研究，对于具象的和微观的军事史研究有很大的帮助。

虽然在山地地形较多的朝鲜，使用战车这种方式，还是会让人有些犹豫，但是像以炮手为中心，射手，杀手，马兵等兵种相互配合的综合型战术，在朝鲜的军队中一直在不断地尝试。在丙子胡乱之前，1634年，仁祖12年，在训练都监中，马兵的规模就从200名扩大至了500名，可以看得出政府为了实施综合型战术所做出的努力。所以，由此可见，《练兵指南》在军事史方面具有一定的意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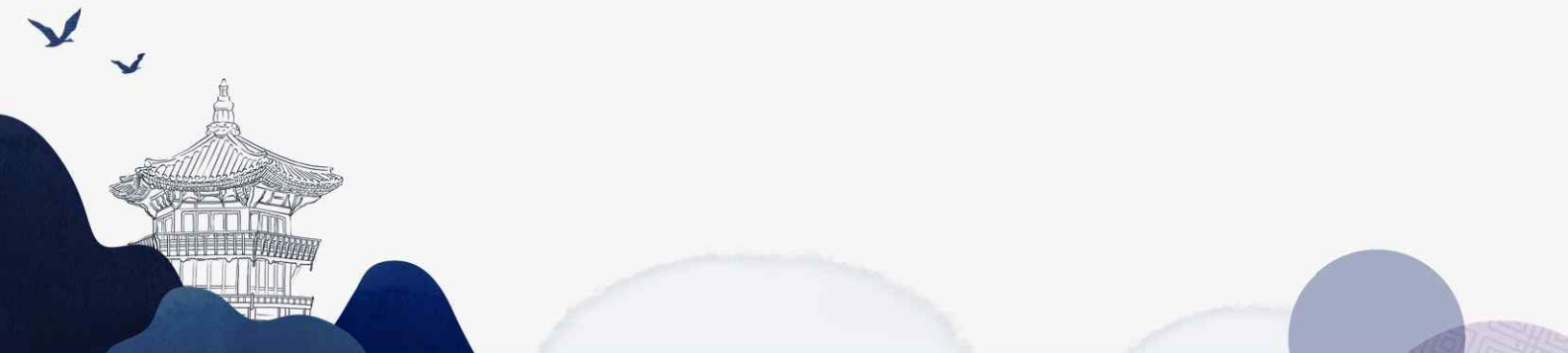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其次，这本书附有谚解，所以也是一部17世纪初期重要的国语学资料，具有重要的意义。从国语学的层面来看，在这本书的谚解中，收录了部分这一时期咸镜道咸兴地方方言的韩语单词，对于古典韩语研究也有很大的帮助。对于这部作品的内容中部分反映了咸镜道地区的标记，在学术界中仍存在争议。

我们这节课一起学习了《练兵指南》的出版背景和作者韩峤的生平，以及这本书的体裁和内容概要，以及这本书的学术价值。在下节课，我们将节选《练兵指南》中的部分主要内容进行介绍，会学习在《练兵指南》中出现的，朝鲜后期的军用信号旗帜的种类及其使用方式等内容。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퀴즈

### 01 다음 중 『연병지남』의 저자 한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분

- ① 한명회의 후손으로 조선중기의 성리학자이자 병학자였던 매우 독특한 인물이다.
- ② 이황이 이발(理發)을 주장한 것을 반대하여 성혼에게서 성리학을 배웠다.
- ③ 임진왜란 초 향병을 모아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워 사재감 참봉에 제수되었다.
- ④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정사공신 3등 서원군에 봉해졌고 이괄의 난 진압에도 참여하였다.

정답 ②

**해설** 한교는 조선중기의 성리학자이자 병학자로 학문 초기 이이의 문하에 있었으나 이이가 기발(氣發)만을 인정한 것을 비판한 성혼을 지지하며 조헌, 황신, 이귀 등과 성혼의 문하로 들어와 기존 성혼 문인인 오윤겸, 최기남, 안방준 등과 성혼학파의 일원이 됩니다. 따라서 ②는 정확하지 않은 서술입니다.

### 02 다음 중 『연병지남』 편찬의 배경과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분

- ① 임진왜란 이후 계속된 일본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인 절강병법을 조선에 보급하기 위한 군사 교련서로서 편찬이 준비되었다.
- ② 척계광이 북방 몽골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한 전술을 소개한 병서인 『연병실기』를 조선군에 적용하기 위해 편찬에 착수되었다.
- ③ 한교는 임진왜란 전후 만주 남부지역의 건주여진 위협이 증대하면서 여진족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전술 개발의 필요성에서 『연병실기』의 전차 이용 전술에 주목하였다.
- ④ 한교는 전차를 만들어 평안도에서 시험하고 조선에 적합한 전차 운용 전술을 고안하여 1612년 편찬하였으나 반대 의견이 많아 이 전술은 조선에 채택되지 못하였다.

정답 ①

**해설** 『연병지남』은 여진 기병을 저지하기 위한 전술 개발을 위해 한교가 척계광이 고안한 전차 운용 전술을 담은 『연병실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조선에 적합한 전차 운용 전술을 소개한 병서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대응하기 위한 절강병법을 조선에서 편찬하여 널리 보급된 병서는 『병학지남』입니다.



### 03 다음 중 『연병지남』 이외에 한교가 편찬한 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5분

- ① 『기효신서절요』
- ② 『가례보주』
- ③ 『무예제보』
- ④ 『병학통』

**정답** ④

**해설** 『병학통』은 18세기 말 국왕 정조의 명으로 한성에 주둔한 훈련도감 등 군영의 전술을 통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편찬된 병서이다. 『기효신서절요』와 『무예제보』는 한교가 편찬한 병서로서, 『기효신서절요』는 의 병학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무예제보』는 절강병법에 필요한 등패, 낭선, 당파, 장창 등 여섯 무예를 정리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무예서입니다.





## 04 다음 중 『연병지남』의 체재와 내용에 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5분

- ① 권의 구분없이 한 책으로 되어 있으며, 본문은 한문으로 내용을 서술하고 이어 언해를 부기하는 체재를 갖고 있다.
- ② 목차는 크게 네 부분으로 「거기보대오규식」, 「거기보합조소절목」, 「거기보대조절목」, 「병거제」로 이루어져 있다.
- ③ 「병거제」에서 소개하는 전차는 선조대 무인인 정준봉이 고안하고 북병사 유형이 채택하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 ④ 전차의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분해도와 전차 운용 진법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정답**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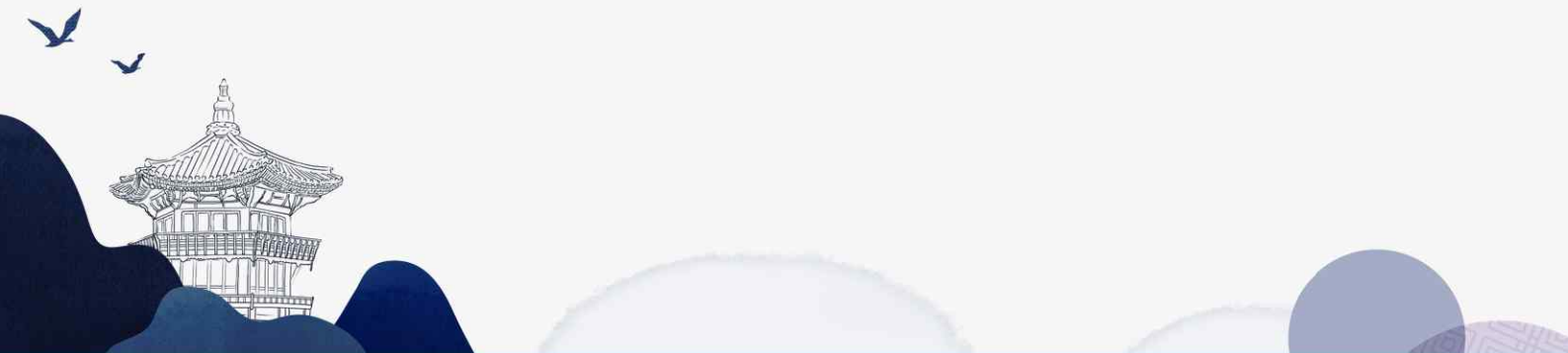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해설** 『연병지남』은 1책 36장의 병서로서 한문으로 내용을 서술하고 이어 언해를 붙인 체재이다. 항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거기보대오규식」은 한 전차[車] 부대를 지휘하는 거정(車正)의 역할, 총수(銃手), 살수(殺手), 궁수(弓手), 마병(馬兵) 각 12명씩으로 이루어진 한 대(隊)의 편성과 전차를 중심으로 하여 각 병종의 병사들이 서는 위치 및 전투 시 행동 요령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거기보합조소절목」은 전차, 기병, 보병을 통합하여 훈련하는 합조의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거기보대조절목」은 각 병종을 대규모 운용하는 훈련인 대조의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의 「병거제」는 이 책의 핵심적 무기인 전차의 구조를 보여주는데 정준봉이 고안하고 유형이 채택한 것을 개량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책에는 다른 병서에서 대부분 수록하고 있는 진법 그림 등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토론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토론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A4 한 장 정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 다른 수강생이 남긴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답변으로 남겨도 토론 점수가 인정 됩니다.

## 주제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부터 건주여진의 조선에 대한 위협이 심각해졌다. 건주여진은 임진왜란 이후 백두산을 넘어 두만강 하류 일대까지 세력이 확대되고 이어 만주 내륙의 해서여진에 대한 공략을 본격화하는 등 대부분의 여진 부족이 건주여진의 영향력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조선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진 기병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어전술이 대두되었는데 대표적인 하나는 기병이 우세한 여진과 평원에서의 직접적인 전투를 회피하고 대신 요충지에 성곽을 축조하여 화포로서 대응하는 방어전술이었다. 이러한 소극적인 전술 이외에 여지에서의 전투를 고려하여 기병의 돌격을 저지하는데 유용한 전투용 수레인 전차를 대량 제작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전술이 제안되었다. 이 상이한 방어전략은 당시 북인, 서인 등 각 정파의 국방정책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여진에 대한 방어전략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 보자. (60분)

##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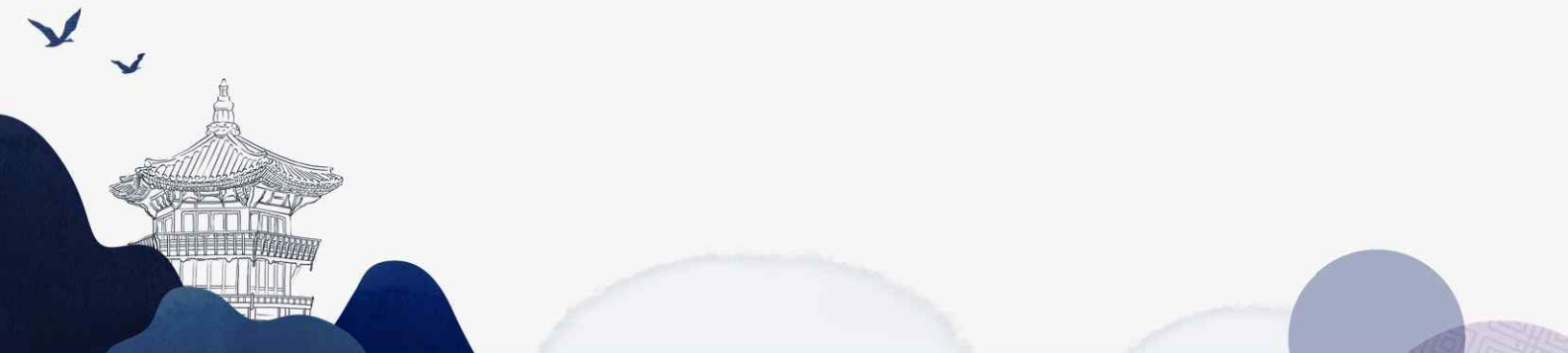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17세기 초 여진에 대응하기 위한 조선의 여러 논쟁은 성곽 축조와 화포를 이용한 방어 전략과 평원에서 전차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전략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파의 국방정책 차이와 관련이 있는데, 내치를 중시하고 국제정세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였던 북인 세력은 수세적인 방어책을 중시하였습니다. 1614년(광해군7) 기존의 조총 제조 관서인 조총청을 확대하여 화기도감(火器都監)을 설치하고 각종 화기를 제조한 것은 이를 반영합니다. 이에 비해 여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의 서인은 명나라와 함께 여진족에 대응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만주 평원 일대에서의 전투를 상정하였는데 한교 등의 전차 운용 전술이 그것입니다.

이상의 두 견해는 인조반정 이후에도 논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북벌의 추진과 이에 따른 전술 논의에서도 계속 전개되었습니다. 따라서 광해군대 초기의 전술 논쟁은 조선후기 논의의 시원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으며 정파에 따른 국방정책 차이가 전술적으로 어떻게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자료

### 도서

- 연병지남, 북방의 기병을 막을 조선의 비책, 한교 저, 노영구 역해, 아카넷, 2017

17세기 초인 광해군4(1612) 조선의 병학자인 한교가 당시 건주여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명나라 척계광이 몽골의 기병을 저지하기 위해 전차를 이용한 전술을 소개한 《연병실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조선에 적합하도록 편찬한 《연병지남》의 내용을 역해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의 군사적 상황을 전술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한국군사사7, 노영구 등저, 경인문화사, 2012

2장, 3장에서 임진왜란과 정묘·병자호란을 전후한 조선의 군사제도 및 전술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및 일본, 여진의 전술 및 조선에의 영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도 참고할 만합니다.

- 조선중기 무예서연구, 노영구 등저,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이 책은 임진왜란 직후 편찬된 무예서인 『무예제보』, 『무예제보번역속집』의 편찬과 내용 등에 대해 해설하고 역주한 것입니다. 특히 2장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각종 단병 무예의 도입과 무예서 간행의 추이에 대한 개괄적 서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무예서에 나타난 언해 표기법 등의 특징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도 참고할 만합니다.